강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청산별곡> 교육 방안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레미

<청산별곡> 교육 방안 연구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 레 미

인 준 서

신레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청산별곡>의 역사성과 내용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적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산별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산별곡>의 작품 형태, 작자계층, 내용 등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작품의 어석상의 난해구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 없다는 점, 또한 작자와 창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청산별곡>은 작자와 해석, 주제, 화자의 정서 등이 매우 다양한 견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에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학습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들의 양상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과 학습 목표, 학습활동에 대해 살피며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 다룰 <청산별곡>의 문학 교과서 체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청산별곡>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청산별곡>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데 <청산별곡>의 제작 시기를 고려 말의 혼란기에 적용하여 그 해석이 다양함을 이해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청산별곡>이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불러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품 외적인 면의 감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청산별곡>은 작품 내적인 면에서 슬픔, 고독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서정시로서의 보편성과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판과 재창조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본 논문은 이 작품을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맥락, 또 인간 보편적인 정서와 리듬감 등을 이해하는 역사성에서 벗어난 맥락으로 나누어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사 ·····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6

Ⅱ. 교과서 수록 현황과 <청산별곡> ····· 10
1. 작품 현황 및 분석 ····· 10
2.「문학」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의 문제점 ····· 14

Ⅲ. <청산별곡> 교육 방안 ····· 24
1. 본시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 ····· 25
1) <청산별곡> 학습지도안 ····· 26
2) 교수-학습의 실제 ····· 27
2. 심화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 ····· 40
1)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법 ····· 40
① <청산별곡>의 역사성 ····· 41
②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 48
2) 탈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법 ····· 68
① <청산별곡>의 보편성과 서정성 ····· 68
②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 75

Ⅳ. 결론 ····· 92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사

고려속요[1]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이다. 고려속요는 국문으로 표기되어 『시용향악보』,『악학궤범』,『악장가사』등에 실려 14수[2]가 전해 오고 있다. 고려속요는 민중에서 궁중으로 유입되어 성행하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전해져 국문으로 표기되어 온 것을 볼 때,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속요 중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산별곡(靑山別曲)>은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전 8연이,『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 첫 연이 실려 전해지고 있다.

<청산별곡>에 대한 연구는 어석연구[3] 에서 출발하여 내용분석, 형식, 창작 시기[4]와 작자문제 등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

1) 고려속요는 그 명칭이 학자마다 고려가요, 고려속요, 속요, 속가, 속악가사, 장가, 별곡 등으로 불리고 있다. 고려 때 평민들이 부르던 민간 가요 형태의 노래이지만 궁중악으로 편입될 때 개작을 거쳤으므로 그 성격을 단정 지을 수 없다. 대신에 장가, 별곡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전체의 속성을 포괄하는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널리 통용되는 고려속요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2) 국문으로 전해져 오는 고려속요 14수는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동동>, <정석가>, <상저가>,<쌍화점>, <정읍사>, <만전춘별사>, <이상곡>, <처용가>, <유구곡>, <사모곡>, <정과정> 등이다.

3)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92.
전규태, 논주고려가요, 정음사, 1987,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1984.

4) 고려속요 작품들은 고려시대 노래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이 중 『고려사』'악지'에 기록된 <정과정>, <동동>, <처용가>를 제외하고는 고려시대 창작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속요라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조선조에 창작되었다는 문헌기록 등의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내용적 특성에 의해 같은 장르에 귀속시킨 양주동의『여요전주(麗謠箋注)』(1947)의 영향력을 들 수 있고, 셋째는 국악계의 연구결과들이다. 창작시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의문도 불구하고 고려속요 작품들을 고려시대 작품으로 보기에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출판부,1999, pp.19-20.).

작품 내용에 관한 견해로서, 실연의 노래[5], 낙천적인 정조가 잘 드러난 작품[6], 적극적 현실참여의 노래[7], 현실비판의 염세적 노래[8], 유랑하는 백성들의 노래[9] 등 다양하다.

작품 형식에 있어서 작품 구조가 5연과 6연이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10], 의미상으로 나눈다면 6연에서 나뉜다는 견해[11]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작시기와 작자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문화・사회학적 관점으로 <청산별곡>에 나타난 시적 상황이나 작자를 역사적 현실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청산별곡>의 제작 시기를 고려 후기의 혼란기로 설정하고 있다. 작품의 생성시기를 특정한 때로 잡은 견해가 나타나는데 김언종[12]은 <청산별곡>의 제작연대를 의종 연간으로 보았고, 고창식[13]은 의종 24년에서 고종 42년간이라고 보았고, 서수생[14]은 고종 조 전후에 형성된 작품이라 생각하나 아무리 늦게 잡아도『익재 소악부』한역 시기 이전 고려 어느 임금 때임이 틀림없다고 했다[15].

박희병[16] 은 <청산별곡>을 시대와 연결하여 당시 유랑민과 밀접한 관

5)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63, p.307.

6) 김사엽, 국문학사, 정음사, 1954, p.265.

7)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p.112.
이승명,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6, p.126.

8) 전규태,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6, p.98.

9) 신동욱,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pp.1-14.

10) 장지영, 옛노래 읽기(청산별곡), 한글통권제108호, 한글학회, 1955, p.13.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p.109.

11) 이성주, 고려시가의 연구, 웅비사, 1991, p.71.

12) 김언종, 고황논문집 1집, 경희대학교출판사, 1977. pp.27-37.

13) 고창식, 청산별곡 해석에 대한 관견, 국어교육 3호, 국어교육연구회, 1962, pp.89-95.

14) 서수생, 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0, pp.108-109.

15) 김쾌덕, 고려노래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P.221, 재인용.

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성[17]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품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3연의 시적 상황을 고려후기의 절박한 사회상과 결부시켜 화자의 신분계층을 추정하였다. 고려후기 빈발했던 민란에 가담한 농민, 어민, 노예, 광대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집단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며, 반란민들의 노래였기 때문에 조선조 왕실에서 금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노준[18]은 몽고족의 2차 내침이 있던 고종 19년에서 고종 44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추정한다.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 <청산별곡>의 생성배경을 찾았다. 그는 『고려사』 세가편(世家篇) 고종(高宗) 19년 조와 열전(列傳) 최충헌 조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역사적 사실을 들었다('又遣使諸道 徒民山城海島').

몽고와의 전란 중, 고려의 지배세력은 강화천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산성이나 해도로 옮기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러므로 <청산별곡>은 고종19년 6월 이후, 산, 바다로 난리를 피하여 헤매던 피난민들이 지은 노래라고 주장 한다. <청산별곡>에 나오는 '청산'과 '바다'가 『고려사』에 나오는 산성과 해도라고 보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로 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

16) 고려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은 12세기 후반의 무신란 이후 심화되어 왔다. 잦은 민란이 그 증거이다. 명종, 신종, 고종 때 토지로부터 유리된 유민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 원나라 지배에 빌붙은 권문세족들이 탐욕적으로 토지겸병을 일삼으며 온갖 수탈을 자행함으로서 농민의 처지는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도망하여 산에 숨거나 녹림에 결집해 도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14세기의 진보적인 시인 윤여형(尹汝衡)은 「도톨밤 노래(橡栗歌)」라는 시에서 고발하고 있다. 몇 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두 도망해버리고 힘없는 늙은이만 남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한 농촌 마을을 이 시에서 생생히 목도할 수 있다. 「청산별곡」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유랑하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재현하고 있다. 작품은 머루나 다래, 해초나 조개로 연명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유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대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박희병, 고려가요의 민중정서, 『민족문학사 상』, 창작과 비평사,1995, p.111.)

17)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부, 1980.

18) 박노준, 청산별곡의 재조명, 『고려가요의 연구』,새문사, 1990, p99.

몽고침략으로 인하여 전국의 백성들을 산성과 해도로 옮기게 한 것은 그것이 방어지로 적합하였을 것이고, 특히 해도로 옮기게 한 까닭은 수전(水戰)에 능하지 못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조정의 조치와 같음을 주장하였다.

임주탁[19]은 박노준의 '산성・해도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은 주목할한 하다고 했으나 <청산별곡>이 방황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생성된 노래라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청산별곡>에서의 '청산'・'바롤'에서의 삶은 산성・해도 중심의 임시 체제 안에 머묾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청산별곡>텍스트는 강화천도기, 좁게는 고종 36년(1249) 무렵의 역사적 문맥에 두고 읽을 때 그 의미가 가장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주탁은 <청산별곡>의 텍스트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청산별곡>의 화자를 셋으로 나누고, 제작 시기를 고종 36년 강화 천도 이후 강화 중심의 국가 통치 체제 때로 설정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20]. 생성문맥과 연관된 부분의 논의는 역사적 상상력에 더 많이 기대고 있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에 입각하여 <청산별곡>을 재구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구체적인 역사와 기록에서 밝히려고 한 이들 학자들의 의견은, 민중들이 겪는 삶의 절박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노래의 창작 가능성 및 작자를 찾는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산별곡>에 관한 연구 논문은 많지만 교육론에 관한 연구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청산별곡>과 관련한 교육론과 관계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9) 임주탁,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강화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20) 임주탁, <청산별곡>의 독법과 해석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p.137.

이유지는 고려속요의 효과적인 수업 지도방법의 모색에 연구 목적을 두고, 교사의 입장에서 고려속요를 지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뽑아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산별곡> 지도 시 스키마의 활용을 전제로 한 실제 수업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전시가 교육의 지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제 문학 교실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애매한 부분들을 중요 항목으로 정하여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고 논의를 전개 하였는데, 장르별 문학의 교수·학습이 고전시가에서도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21].

유옥선은 <청산별곡>의 주제적인 측면과 작자계층에 대한 기존 학계의 의견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지도된 내용이 수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22]. 이는 개별 작품 지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용자의 이해의 폭을 넓혀 다음 단계의 수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김은미는 고려속요 작품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주제 해석의 문제, 성적 해석의 문제, 합성가요적 성격 순으로 검토하였다. <청산별곡>의 경우, 주제해석에 대한 양상과 교육적 효과 면을 고려하여 주제 해석에 대한 문제를 교육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23].

김지연은 한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서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 과거 선인의 정서가 현대인의 정서에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 문학과 우리 문학의 비교를 통해 우리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학의 위치를 살펴봐야 한다[24]는 것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21) 이유지, 高麗俗謠 指導의 方向에 관한 硏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22) 유옥선, 청산별곡의 문학교육론적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23) 김은미, 고려속요의 문학교육적 지도방안,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1999.

이렇게 <청산별곡>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어석문제를 비롯한 명칭, 작품의 구조, 주제와 내용 등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인 면을 봤을 때, <청산별곡>의 주제의 다양성 등은 작품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산별곡>을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된 것에 비해 교육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청산별곡>을 교수-학습함에 있어 도움이 될 구체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 방법

(1)연구목적

<청산별곡>은 양주동에 의해 처음으로 해석이 시도된 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산별곡>의 작품 형태, 작자계층, 내용 등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작품의 어석상의 난해구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 없다는 점, 또한 작자와 창작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청산별곡>은 작자와 해석, 주제, 화자의 정서 등이 매우 다양한 견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에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학습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문학영역에서는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25]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26]하도록 함으로

24) 김지연, 高等學校 高麗俗謠의 敎育 方案 硏究,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2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대한교과서, 2001. p.65.

써 문학 작품 수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청산별곡>이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불러진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데 <청산별곡>의 제작 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고려 말의 혼란기에 적용해 본다면 그 해석도 다양하므로 그에 따른 교수-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전문학 교육이 목적하는바 고전 문학 작품이나 작자의 윤곽을 알려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비판과 아울러 재창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도록[27] 교수-학습해야 한다. 즉,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체험 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내면에 재구성하여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청산별곡>은 슬픔, 고독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서정시로서의 보편성과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한다면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판과 재창조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을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역사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역사적인 맥락, 또 인간 보편적인 정서와 리듬감 등을 이해하는 탈역사적인 맥락으로 나누어 교육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목적은 <청산별곡>을 역사적인 맥락과 탈역사적인 맥락으로 살펴보고,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청산별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26)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대한교과서, 2001. p.66.

27) 이정도, 고려속요 교육론 -정서체험과 내면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 석사논문, 2000. p.8.

(2) 연구방법

Ⅱ장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들의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제 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으로 한정하고,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따른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 본고에서 다룰 <청산별곡>의 문학 교과서 체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청산별곡> 교육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청산별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본 수업'을 한 뒤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사상과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은 그것을 생산한 환경이나 사회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작품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작품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청산별곡> 고려 시대 작품이라고는 하나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은 노래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많은 연구가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청산별곡>은 역사적인 문헌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작품에 대한 의미를 역사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술했듯이 당대의 <청산별곡>에 대한 체험 결과를 기록한 문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한 추론과 가정을 통해 문학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인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문헌기록과 다양한 자료

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 학생들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해보겠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일반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보편적 정서를 탈역사적인 측면으로 현재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수업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교과서 수록 현황과 <청산별곡>

1. 교과서 작품 현황 및 분석

이 장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국어[28]와 문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려속요 작품의 수록 현황과 작품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하는지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속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1 고등학교 국어(상)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 현황>

학년, 과목명	대단원명-소단원명-수록작품명	대단원학습목표	학습활동
10학년 국어(상)	6.노래의 아름다움 (1)청산별곡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1.이 작품 속 화자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대해 추리하여 보자. (2)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따라 노래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해 보자. 2.문학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청산별곡'과 '아리랑 타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고려속요 작품으로는 <청산별곡> 한 작품이 수록 되어 있고,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있다. 시는 언어의 음악성과 형상성, 함축성을 유기

2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주)교학사, 2002.

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다양한 시 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며, 다양한 해석상의 이견, 주제, 구조 등은 학습자들이 작품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에는 <청산별곡>전문이 『악장가사』원문에 충실하게 실려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고어를 다 풀어 놓고 있지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원문에 그대로 실어 놓고 있음을 볼 때 고등학교의 수준이 고전 작품의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시에 문법적 설명도 필요하다. 물론 학습 목표와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국어 교과서의 특성상 문학적인 면 뿐 아니라 민족 문화의 전통을 알고 민족 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어의 변천 과정을 이 작품으로 활용한다면 문학과 문법을 통한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될 것이다.

'학습활동'은 교과서 편찬 취지에 맞게 학습자들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참여를 강조하는 문제들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화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은 '노래의 아름다움'만을 배운 학습자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민요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더 나아가 민요의 계승, 발전과 연관해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통한 과제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고려속요 수록 작품을 살펴보겠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 교과서는 18종이며, 고려속요 작품의 수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고등학교 문학 18종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 현황>

작품명 / 출판사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정석가	청산별곡		만전춘	사모곡	쌍화점
디딤돌	○								
천재	○			○					
금성	○	○						○	
두산			○						
문원각	○				○		○		
블랙박스	○								
민중			○						
중앙		○							
한국	○	○							
상문	○								
교학사(구)	○				○				
교학사(김)	○	○	○						
지학사(권)	○	○	○						
지학사(박)			○						
대한	○								○
청문각	○				○				
태성	○				○		○		○
형설	○				○				

현행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 18종에 수록된 고려속요는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정석가>, <청산별곡>, <만전춘>, <사모곡>, <쌍화점>, <정석가> 등 아홉 작품인데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정석가>, <청산별곡> 다섯 작품이고, 그 외 '더 읽을거리' 항목에 <만전춘>, <사모곡>, <쌍화점>이 실려 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품별, 교과서별 작품의 수록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문학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고려속요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작품은 <가시리>(14종)이고 그 외 작품들은 비슷한 빈도(5종)를 보이고 있다. 또 각 문학 교과서별 고려속요 수록 빈도는 대체로 2편 정도를 싣고 있다.

문학 교과서에는 <이상곡>, <유구곡>, <상저가>, <처용가>, <정과정> 등 다섯 작품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고려속요 다섯 작품의 단원명, 학습목표로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주요 작품>

출판사	대단원·소단원명	수록작품	학습목표
디딤돌(하)	Ⅲ.서정문학의 수용과 창작 2.시의 형식과 표현	가시리	고려속요의 하나로 우리의 전통적인 이별의 정한(情恨)을 잘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한의 성격과 그 표현 방식에 주목해 보자.
금성(하)	Ⅲ. 민족 문학의 흐름 2. 민족 문학의 성장	동동	일년 열두 달에 맞추어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고려속요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月令體)의 노래인데, 이런 형식의 노래는 대개 민요풍의 격조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월령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노래는 왜 월령체 형식을 취했겠는지 생각해 보자.
민중(하)	Ⅱ.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4.고려후기~ 선전기의 문학	서경별곡	고려가요 가운데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부류 중 한 작품이다. 대동강을 경계로 임과 이별하는 심정을 그렸는데, 임에게 하소연하다 못해 뱃사공에게 화를 내며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 여인의 솔직하고 애달픈 심정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천재(하)	Ⅵ.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1) 3.중세 후기 문학	정석가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고려가요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을 이해하며, 화자가 대상에 의지를 투영하는 표현방식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자.
형설(하)	Ⅰ. 문학의 흐름 2. 고려시대 문학	청산별곡	·작품에 드러난 당대의 삶을 이해한다.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이해한다. ·고려속요의 민요적 성격을 이해한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자연관에 대해 이해한다.

※교과서 본문에 실린 다섯 작품은 문학 교과서 18종에 중복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출판사씩만 정리하였다.

문학교과서에서 고려속요는 대부분 시대별 문학사로 나누어 중세문학 혹은 고려시대 문학의 단원에 속하고 있다. 이 단원은 중세후기에 나타난 다양한 갈래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세 문학사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상층의 문학 담당층의 변화와 그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에 상응하여 하층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곧 고려 속요를 통하여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문학교과서에 고려속요 작품 최소 1편씩은 소개 되어 있으므로 한 작품을 가지고 고려속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수-학습을 했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그 수업 목표를 달성 했는가 못했는가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학습목표의 제시가 명확하고 단원의 측성을 잘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위의 다섯 작품들의 학습목표는 나열식이고 길어서 무엇이 목표인지 확실하지 않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는 교사에게 달려있지만 교과서 자체에서도 이 단원 안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확실하고 간단하게 제시해야 될 것이다.

2. 「문학」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의 문제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문학과 문화와의 연계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따라야 한다.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켜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문학'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문학」교과서[29]에 수록된 <청산별곡>이 이러한 '문학'의 목적을 달성

29)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하), 형설출판사, 2004, pp.41-46.

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산별곡>이 소단원으로 실려 있는 문학 교과서의 단원명과 학습목표를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문학」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의 학습목표>

	대단원-중단원	<청산별곡> 학습목표
형설	Ⅰ.문학의 흐름(1) 2.고려시대 문학	1. 작품에 드러난 당대의 삶을 이해한다. 2.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이해한다. 3. 고려 속요의 민요적 성격을 이해한다. 4. 고려 시대 사람들의 자연관에 대해 이해한다.
문원각	Ⅱ.한국문학의 흐름 2.고려시대의 문학	1. 고려 속요의 형식과 율격을 이해한다. 2. 고려 속요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한다.
청문각	Ⅱ.한국문학의 흐름과 전통 2.고려시대의 문학	1. 이 노래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2. 이 노래에 나타난 민중의 삶과 정서를 이해한다.

세 출판사 모두 한국 문학사를 다루고 있고 '고려시대의 문학'에 <청산별곡>을 실고 있다.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고려시대의 주요 문학의 갈래인 고려속요와 그 향유층에 대해 이해하도록 <청산별곡>과 관계된 목표가 설정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문학사를 정리하고 있고, 고려속요의 대표 작품으로 <청산별곡>을 설정하였다.

형설의 <청산별곡>의 학습목표는 위의 표와 같다. 문학 작품은 당대의 삶을 보여주지만 <청산별곡> 작품 속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적인 면과 형

김명순 외, 고등학교 「문학」(하), 문원각, 2002, pp.75-79.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하), 청문각, 2005, pp.78-92.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하), 태성, 2005, p.20.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학사, 2005, p.280.

식적인 면을 학습하여 작품 이해의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 목표는 작품에 드러난 '청산'과 '바다'의 이미지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자연관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목표가 많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교사의 재량으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교수-학습을 통해 무엇을 더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문원각의 <청산별곡> 단원은 고려 시대 문학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 고려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대의 삶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작품 외적인 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고려속요의 특징을 대표하는 <청산별곡>을 다루고 있으므로 목표에서 '고려속요'보다는 <청산별곡>으로 좁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산별곡>은 다양한 학자의 견해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해석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는 당대 상황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각의 <청산별곡>도 형식적인 측면과 노래에 나타난 민중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민중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청산별곡>의 공통점이다. 시적 자아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시의 민중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속요가 민중들이 부른 노래에서 궁중으로 유입되어 개작된 발전과정이 있지만 이들 세 교과서에서는 궁중의 노래라기보다 민중들의 노래로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 교과서의 체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형설은 작품 전문이 수록 되어 있고, 책날개에 어려운 단어들의 해석이 되어 있다. <청산별곡>과 관련된 사진자료가 실려 있었다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 포인트'란에 <청산별곡>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연대와 작자 미상의 고려 속요이다. 시어와 음악성, 율격과 형식상의 우수성, 세련된 언어 감각, 서정성과 감정적 표현이 돋보이며, 당시의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조선 초 궁중 문학으로 편입되어 정착되었다.[30]

<청산별곡>이 '조선 초 궁중 문학으로 편입되어 정착되었다'는 정착과정이 짧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청산별곡>이 실려 있는『악장가사』,『시용향악보』를 설명하면서 민간전승에서 궁중음악으로 정착된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고려속요의 전승과정과 그 특징을 작품의 생명력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해설'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위상과 내용과 형식 등이 설명되어 있으나 학습자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다. 학습자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학습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해설 부분은 수업 정리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충자료'로 '<청산별곡>의 정체성 논란'을 제시하였다. 즉, 누가 어떤 상태에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식인의 술노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노래,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 · 민란과 관련된 민

30) 박호영 외, 고등학교「문학」(하), 형설출판사, 2004, p.42.

중의 노래, 몽고와의 전쟁으로 피난 가는 피난민의 노래 등으로 설명하고 적어도 현실적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노래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뒤에는 '고려속요 작품 해설'이 '정과정곡'을 뺀 12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정과정곡'은 작자가 있고, 개인적인 시라서 고려속요의 성격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활동해 보기'는 '확인하기'와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확인하기'는 그야말로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적용하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청산별곡>의 형식의 측면을 현대시와 민요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등 협동을 고려한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문원각의 준비학습인 '감상하기 전에'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져오는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고, 학습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이상적 세계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청산별곡>과 관련하여 시적 자아가 겪고 있는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산별곡> 본문에는 상세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3연의 '새', 7연의 '사슴'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작품 구조도 5연과 6연이 바뀌었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교과서 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각 연의 중심소재와 중심내용에 대한 설명, 시적 자아의 다양한 견해들을 설명하고 있다. 시적 자아를 유랑민이라는 견해,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지식인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시적 자아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방황하지

만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종합하고 있다.

또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청산별곡>의 기본적인 이해만 설명 되어 있는 것이므로 학습목표를 설정한 것에 따른 형식과 율격을 이해하거나,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교사용 지도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설정된 학습목표에 대한 내용이해는 언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학습활동'의 '목표다지기'에서 학습목표에 따른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내용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다. 학습목표에 따른 내용을 교수-학습한 뒤에 그에 따른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일관성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

'감상 넓히기'에서는 '<청산별곡>의 내용을 생각하며 <서경별곡>을 감상해 보자'는 활동이 있다. 같은 장르의 작품으로 <서경별곡>을 감상하고, 두 작품을 견주어 보게 함으로써 고려속요에 나타난 고려 민중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고려속요 <가시리>와 <만전춘>을 감상하도록 했다. <가시리>에서는 음보에 대한 질문과 연상되는 장면을 그려보고, 시적 자아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고, <만전춘>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중단원의 마무리를 고려 시대 문학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고려속요만을 실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다. 따라서 교과서만을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문각의 본문에도 청산별곡 전문이 실려 있고, 어려운 단어의 해석이 있다. '알아두기'란에 <청산별곡> 시적 화자에 대한 견해로 유랑민이라는 견해, 속세를 떠난 은자라는 견해, 비련의 주인공이라는 견해가 설명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내용 다지기', '목표 다지기', '내 것 만들기'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내용 다지기'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정이 이입된 소재, 각 장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심리상태를 묻는 문제들로 작품을 읽고 난 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목표 다지기'의 첫 문제는 <청산별곡>의 후렴구와 다른 고려속요의 후렴구를 찾아보기다. <청산별곡>의 형식적인 특징은 후렴구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청산별곡의 음악성은 후렴구뿐만 아니라 반복성 등도 있으므로 국한시키지 않도록 교사의 교수-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작품에서 '청산'과 '바다'의 의미와 고려시대의 민중들이 '청산'과 '바다'를 노래한 이유를 시대상황과 연결 지어 설명해보라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시대적 상황과 작품을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하는데 짧은 시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작품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문제이다.

'내것 만들기'에는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와 <청산별곡>의 시적 자아의 지향점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를 실었다. 도움말에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는 삶이 괴롭기 때문에 시름 많은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학의 정신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 흙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남으로 창을 내겠소>와 삶이 괴로워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그린 <청산별곡>은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청산별곡>의 시적 자아를 이해하며 다른 작품과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폭넓은 문학 감상이 될 것이다.

<청산별곡>은 이 외에도 다른 문학 교과서에 학습활동이나 심화학습에 실려 있다. 교학사와 태성의 문학 교과서가 그 예인데,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5 「문학」교과서에 실린 학습문제>

	단원명	문제
교학사(구)	Ⅱ.한국문학과 세계문학 2.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심화학습> 1.다음은 고려속요 '청산별곡'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유랑농민들의 비애가 담겨있다는 견해와 현실생활의 고뇌를 잊기 위한 지식층의 탈속의 노래라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태성	Ⅶ. 한국 문학의 특질 1. 한국 문학의 특성 (1)가시리	<적용학습> 1.민중의 삶을 그린 시가들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잘 형상화 되어 있다. <청산별곡>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심리적 상태를 간략히 설명해보자. 2. 후렴구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

교학사의 심화학습에서 <청산별곡>은 해석상의 이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두 가지 대표적 견해를 예시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학습자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답을 내도록 하는 질문이므로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도움이 될 것이다.

태성의 <청산별곡>은 소단원 '가시리'의 적용학습에 실려 있는 것이다.

시적 자아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 우리민중의 삶과 연계하는 문제와 역시 후렴구의 역할을 묻고 있다. 시적 자아의 정서와 후렴구는 <청산별곡>을 교수-학습하는데 빠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 이 두 가지는 꼭 다루고 있고, 내용과 형식에 대표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산별곡>의 시적 자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문학 교과서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랑민이라는 견해,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지식인이라는 견해 등인데 그 외에 민란에 참여한 백성,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라는 견해도 살피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떻게 이러한 견해들이 나타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청산별곡>은 이러한 견해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별곡>과 관계될 가능성을 가진 사회·역사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 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겠다. 학습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작품의 전승과정으로 민간의 노래만은 아니라는 설명이 부족한 점, 교과서 본문에 실려 있는 해석에서 다른 견해들이 소개만 되어 있을 뿐 다른 활동이 없다는 점, 작품의 외적인 면을 다룬 학습활동이 부족한 점 등이다.

이렇게 <청산별곡>의 체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도권 교육 내에서 일반적인 내용만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교과서의 성격상 제약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교과서들이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살펴본 문학 교과서에서 <청산별곡>은 내용적 측면에서 당대 민중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 형식적 측면에서 후렴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되고 있다. 당대 민중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그것을 작품에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해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에서 설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따로 심화과정을 두고 교수-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대 민중들의 삶을 살펴 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청산별곡>의 노랫말이나 리듬감이 주는 아름다움 등을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Ⅲ. <청산별곡> 교육 방안

문학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비평의 기초지식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작품은 학습자 스스로 감상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지식은 익혀두어야 한다. 고려속요의 개념적 지식은 꼭 필요한 개념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 다음은 자세히 읽기를 한다. <청산별곡>은 비유적 언어가 많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비유적인 시어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어의 비유적 의미를 나름대로 구체화해 보아야한다.

고려속요를 해석할 때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접근하기 쉽다. 작품 속의 시적 자아는 지금 어떤 위치이며,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시적 자아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고려속요의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은 작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이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창작되었는가를 학습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작품들이 역사적인 상황의 한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작품과 관련한 문헌들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해서 학습자 스스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와 의문점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문점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운 고어 보다 해석을 먼저 읽게 하는 접근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아무래도 고어로 된 내용은 작품 감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학습자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이 된 것을 먼저 감상하고 어느 정도 작품과 친해지면 작품 원문과 해석상의 다양함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산별곡>은 8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을 상황전개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청산'과 '바다' 등의 소재로도 학습자의 상상으로 재구성하여 연극을 할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해 <청산별곡>을 교수-학습하는데 있어서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문학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생소한 고어와 해석상의 이견(異見) 등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는 <청산별곡>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뒤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안을 위해서 본 수업에서 <청산별곡>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후에 심화 과정에서 학습자들 스스로 탐구 할 수 있는 조별 학습이나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 장에서 미약하나마 제시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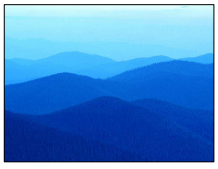
1. 본시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

본시 학습에서는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하기 전에 고려속요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예습 활동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예습 활동에 필요한 '예비학습지'를 제시한다. 본 수업에 들어가서 <청산별곡>의 기본적인 내용을 교수-학습하도록 한다.

학습지도안에 따라 <청산별곡>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시

해 보겠다.

1) <청산별곡> 학습지도안

교수 학습 전개과정			단계별 활동내용	비고
도입	준비단계	1.동기유발 2.예습확인 3.학습목표 확인	1.고려속요에 관한 질문을 하여 확인 2.푸른 산이 담긴 사진을 보여준다. 느낌이 어떠한가? 작품 감상을 위한 학습자의 능력, 태도, 흥미 확인  3.본시 학습 목표 제시 및 확인 - 노래와 시의 공통점을 알 수 있다. - 각 연의 뜻을 알 수 있다. - 시적 자아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예비학습지 사진 (5분)
전개	청산별곡 읽기	1.낭송하기 2.노래 들려주기	1. 운율과 정감을 느끼며 낭송하도록 지도한다. 2.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와 시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한다.(가시리, 청산별곡)	카세트
	내용 이해 및 형식 이해	내용 이해 하기	1. 내용과 제재 2. 시구 해석의 다른 견해	p.p.t.
		형식	1.형식: 전8연, 각 연4구(분절체), 후렴구	(40분

		파악 하기	(여음), 3.3.2조, 3음보 율격 살어리/살어리/랏다. // 靑山애/살어리/랏다.// 멀위랑/ᄃᆞ래랑/먹고, // 靑山애/살어리/랏다. 2. 작품의 구조 기-승-전-결	)
정리	정리 및 평가	1.학습내용 정리 2.형성평가	1.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2.형성평가를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며 수업을 마무리 짓는다.	형성 평가 문제 지 (5분)

2) 교수-학습의 실제

① 예습활동 : 아래의 정리한 자료를 미리 읽어오도록 한다. 이것은 <청산별곡>을 공부하기 전에 고려 속요에 관한 자료로 본시학습을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다. 수업 시간에도 필요하므로 본 수업시간에 지참하도록 한다.

◈예비학습지◈

※'고려속요'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 고려 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여요(麗謠)' 또는 장가 (長歌)라고도 한다.

(2) 특징 : 리듬이 매끄러우며 표현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되었다.

(3) 형성 : 궁중에서 연주되던 속악(俗樂)의 가사로, 민간에서 불려진 민요 형식의 노래가 궁중에 맞게 속악 정재(俗樂呈才)공연방식에 맞게 개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오늘날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4) 형식

① 분절체(分節體)

② 후렴구 발달

③ 3·3·2조 혹은 3·3·3조의 3음보

(5) 내용

① 남녀간의 사랑

② 자연에 대한 예찬

③ 이별의 슬픔 등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6) 작가 : 대부분이 미상임

(7) 의의 : 고려 가요는 표현의 소박성과 함축성, 풍부한 정서 등 국문학사상 뛰어난 작품이 많다.

(8) 수록 문헌 : 조선 초에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국문으로 기록되어 정착되었다.

(9) 고려속요 작품

작품명	성격	비고
정읍사	망부석 설화	현전 유일의 백제 가요
사모곡	효심(孝心)	곡조명:엇노리. '목주가'와 연관됨
상저가		백결 선생의 '대악'의 후신
동동	송도(頌禱)	월령체(달거리 형식) 노래의 효시
정석가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만수 무강 송축
처용가	축사(逐邪)	향가 '처용가'에서 발전, 희곡적 노래
청산별곡	현실 도피	비애. 고독. 도피. 체념
가시리	별리의 정한(情恨)	이별의 한, 기다림의 전통적 여심
서경별곡		강물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극적 이별
쌍화점	솔직한 사랑 표현	남녀상열지사
만전춘		남녀상열지사, 시조의 형식
이상곡		남녀상열지사
유구곡	애조(愛鳥)	정치 풍자

◈ 예습 평가 문제 ◈

(　　)반 (　　)번　　이름(　　)

※다음은 <고려 속요>에 대한 설명 내용이다.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보자.

1. 정의 :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를 이른다. 이는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운율이 무척 아름답고 표현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되어 있다. (고려속요) 또는 여요, 장가(長歌)라고도 한다.

2. 형식 : 순 우리말로 된 것인데 대부분이 분절식(分節式) 3음보로 되어 있고, 분절마다 (후렴구)가 붙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내용 : 주로 현세적 , 향락적, 남녀간의 솔직한 애정, 이별의 아쉬움 등 평민들의 숨김없는 (인간성)을 나타낸 것이어서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4. 고려 가요 수록 문헌 :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조선 성종 무렵부터 문자로 기록되었다. 수록 문헌에는 「악학궤범」,「(악장가사)」,「시용향악보」,「대악후보」등이 있다. 5. 전하는 작품 : '동동', '처용가', '정석가', '(청산별곡)', '(가시리)', '서경별곡', '사모곡', '쌍화점', '이상곡', '만전춘', '상저가', '유구곡' 등

② 도입

대단원 제목을 소개하면서 본 단원의 학습 안내를 한다. 예습 내용 확인 차 진단학습을 한다. 고려속요의 명칭과 개념, 고려속요의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또 고려속요는 어디에 실려 있는가의 출처 등 쉬운 질문을 한다.

다음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녹음이 짙은 산'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하도록 한다. 또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한다.

예) 아름답다. 평안하다. 아늑하다. 한가롭다 등 ⇒ 푸른 색, 평화로워 보여서, 고요한 것 같다.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본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③전개

㉮ 청산별곡 읽기

<청산별곡>을 학생들 모두 같이 낭송하여 운율과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청산별곡>과 관련된 다양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는데 그 중에 곡이 다른 가요를 선택했다. 이명우의 '가시리' (가시리+청산별곡 1연), 노바소닉 3집의 '청산별곡'을 들려주고 두 노래를 들은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 이명우의 '가시리'는 조용해서 답답하다. 쓸쓸하다. 얄리얄리얄랑셩~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흥겨움이 느껴진다.

노바소닉의 '청산별곡'은 낮은 음성과 책을 중얼중얼 읽는 듯해서 지루하다. 졸리다. 어둡다. 등

이런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가요를 들려주면서 교수-학습 자료로 삼아 시와 노래의 공통점을 찾게 함으로써 시에 대한 친근감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노랫말을 낭송함으로써 시적인 표현의 재미와 감동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둠별 학습으로 노래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했던 율격 의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시와 노래의 율격 지향성을 깨닫도록 한다.

위의 두 활동 후에 <청산별곡>에서 규칙적으로 느껴지는 언어적 표현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노래와 시의 공통점을 적어 보게 한다.

시는 본래 곡에 붙여 부르던 시가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현재 노래와 시는 서로 별개로 논의되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공통점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시와 노래는 둘 다 음악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청산별곡>도 가집에 실려 있는 노래였음을 상기시킨다.

㉯ <청산별곡> 내용 이해하기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살리라, 살고 싶구나, 살아야 했을것을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머루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후렴구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우는구나 일어나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너보다 많은
(비교의 기능)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날아가던 새, 평원 지대
갈던 사래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 이끼 묻은 병기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낮에는 지내겠지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울 사람도 밤에는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맞아서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바다에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나문재(바다나물), 굴과 조개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듣노라

사ᄉᆞ미 짒대예 올라셔 해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다(기적을 바람).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다(산대잡희).

가다니 ᄇᆡᄇᆞ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배부른 독에 술을 빚는구나

조롱곳 누로기 미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 ᄒᆞ리잇고.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잡으니

<청산별곡>에 대한 각 연의 내용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제1연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그렸다. '청산'은

현실과 반대인 자연으로 현실도피적인 성격이 보인다.

'살어리랏다'의 해석에는 '살리라'(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의 의지적 표출), '살고 싶구나'(청산에 살고 싶은 단순한 소망 표출), '살아야 했을 것을'(청산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으로 볼 수 있다.

제2연에는 청산에 위치하여 우는 새가 나타난다. 생의 비애를 참지 못하고 울거나, 아니면 역설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새는 괴로운 심정과 비탄에 잠긴 화자의 벗이라 할 수 있다. 새'는 2연의 소재로 그 기능은 고독한 서정적 자아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서정적 자아의 분신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

'우러라'는 명령법으로 보아 '새야, 울어라'로 해석되기도 하고 '노래하다'의 의미로 보아 '새야 노래 불러라, 너보다 근심 많은 나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는 것은 삶의 카타르시스(정화작용)로 볼 수 있다.

이 연에 나타난 '새'는 비애감을 느끼게 하는데, <상춘곡>의 '새'는 흥겨움을 나타냄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제3연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벗이었던 새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속세가 싫어 절속의 세계인 청산으로 찾아들었지만, 속세에의 미련을 완전히 단념할 수 없는 화자의 번민을 비유한 것이다.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잉 무든 장글란'의 해석이 이끼 묻은 쟁기로 봤을 때는 '갈던 사래'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경작하던 밭을 빼앗기고 유랑하는 농민의 비애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믈 아래'는 청산과 반대되는 속세로 이 상황은 5연에서 구체화되고 있

다.

제4연에서는 청산에서의 절망적인 고독을 노래했다. 낮은 그럭저럭 지냈으나 아무도 없는 밤의 정적 속에 맞는 절망적 고독은 극대화 된다. '밤'은 '암흑의 세계, 광명이 없는 세계'로 절대 고독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의 내용과 유사한 문학작품으로 다음 작품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
누릿 가온ᄃᆡ 나곤 ᄒᆞ올로 널셔.
아으 動動다리. -'동동'에서-

귓도리 저 귓도리 에엿부다 저 귓도리 어인 귓도리 지는 ᄃᆞᆯ 새는 밤의 긴 소릭 쟈른 소릭 節節(절절이) 슬픈 소릭 제 혼자 우러 네여 紗窓(사창) 여윈 ᄌᆞᆷ을 술드리도 ᄭᆡ오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ᄯᅳᆺ 알리는 젓분인가 ᄒᆞ노라. -사설시조-

제5연은 어느 누구도 미워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서 울고 있는 화자를 볼 수 있다.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에서처럼 삶의 고통은 고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애절해지고 있다. '마자셔 우니노라'는 자포자기적인 체념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방향도 목표도 없는 돌, 또 이유 없이 맞게 되는 것은 인간의 운명적 체념과 절망적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6연은 청산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위안을 얻고자 절속의 세계인 청산으로 찾아 들었으나, 고독은 버릴 수 없어 다시 새로운 세계인 바다로 향한다.

제7연은 '사ᄉᆞ미 짒대예 올라서 ᄒᆡ금을 혀거를'의 해석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기적 같은 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슴이 장대 위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의 절박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화자는 속세

에서 느끼는 자신의 고독과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사슴의 탈을 쓰고 해금을 켜는 광대의 모습에서 군중 속의 광대의 고독을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도 있다.

제8연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얻게 되는 시름과 고독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술에 취해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술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도구이다. 술에 취해 슬픔을 잊어보려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청산'과 '바다'도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시구 해석의 다른 견해[31](더 깊이 들어가기)

●가던 새(3연)

㉮ 날아가던 새(박병채,정병욱 등)

박병채는 '가(行,去)+ 더(과거환상)+ ㄴ(관형사형 어미)+ 새'의 형태로 보아 '가던 새' 혹은 '날아가던 새'로 보고 있으며, 전규태는 막연하게 '가는 것'
으로 보기보다는 '날아가는 것(비상)'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하여 '날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 갈던 사래(서재극, 신동욱 등)

'갈던'이 'ㄹ'탈락에 의해 '가던'이 된 것이고, '새'도 '사래'에서 'ㄹ'탈락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고려 후기 유민의 애환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다. 즉, 갈던 밭을 빼앗겨 청산에 들어와 녹슨 쟁기를 들고 과거 평원 지역의 갈던 밭을 본다는 것이다.

●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3연)

㉮ 이끼 묻은(녹이 슨, 무딘) 쟁기를 가지고(양주동, 박병채, 신동욱 등)

'잉 무든'을 잇(苔)의 'ㅅ'이 '무든'의 'ㅁ'위에서 울림소리로 약화된 표기로 보고, '장글란'을 '이끼 무든 쟁기', 즉 녹이 슨 쟁기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 녹슨 병기를 가지고 (전규태, 정병욱, 김형규 등)

'잠ㄱ'의 원뜻이 병기라고 보는 데서 연유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려후기의 사회적 배경이 몽고와의 항쟁에 있었기 때문에 청산에 피난해 온 백성들이 몽고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끼 묻은(푸른 녹이 슨) 은장도를 가지고(김완진)

청산별곡의 서정적 자아를 여성으로 보고, '장글란'을 본격적인 병기나 무기라기보다는

여인들의 패물의 하나인 장도(粧刀)라 해석하는 경우이다. 임이 나의 곁을 떠나 임을 위해 지녀야 할 은장도가 소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임이 있는 속세를 향해 날아가는 새를 본다는 것이다.

● 사ᄉᆞ미 (7연)

㉮ '사ᄉᆞ미'를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라고 보는 경우(김완진)

산대 잡희(山臺雜戱)를 하는 광대 중에서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비애(悲哀)의 감정을 이완(弛緩)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 '사ᄉᆞ미'를 역설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박병채, 정병욱, 전규태 등)

시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파악하여,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서정적 자아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8연)

㉮ '잡ᄉᆞ와니'의 목적어를 서정적 자아로 보는 경우(양주동, 박병채 등)

'누룩 냄새(술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겠습니까?)'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서정적 자아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괴로움을 잊는 길은 술밖에 없다고 생각해, 술에서 구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본다.

㉯ '잡ᄉᆞ와니'의 목적어를 임이나 임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김완진)

말하는 이가 자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잡?와니'의 목적어는 '나'가 될 수 없다면서 '잡ᄉᆞ와니'의 목적어는 '님'이며 주어는 '강술'이라고 보았다. 이때는 '(조롱곳) 누룩이 매워 맛좋은 강술이 (우리 님을) 붙잡으니'로 해석된다.

각 연별로 살펴보면서 <청산별곡>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문학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형식 이해하기

<청산별곡>은 3음보와 3·3·2조의 음수율이 보인다.

예) 살어리/ 살어리/ 랏다//

31) 최철·박재민, 석주 고려가요, 이회, 2003, pp.106-137, 김명준,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3, pp.140-142.

청산에/ 살어리/ 랏다

또 aaba의 운율 구조를 가진다. 전체 네 마디 중에서 같은 뜻의 말이 세 차례 반복되고, 네 마디 가운데 셋째 마디는 다른 말이 오는 aaba 형식[32]이다. 이런 반복은 민요의 기본적 표현이며, 우리 노래와 시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예) 살어리(랏다)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a a b a

가시리(잇고)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가시리')

a a b a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 고운 해야 솟아라

a a b a (박두진 '해')

<청산별곡>은 후렴구를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은 여음인 '얄리얄리 얄라(랑)셩 얄라리 얄라'는 음악의 리듬을 돋우기 위해 악기 소리를 본따 쓴 것으로 보인다. 'ㄹ,ㅇ'자음과 'ㅏ,ㅓ,ㅣ'등의 모음의 운율감을 잘 살렸고 반복이 부드러움과 경쾌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러한 리듬감은 현대시에 와서는 김영랑의 시에 잘 반영되어 있다.

후렴구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의 기능에 대해 더 알아보자.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는 각 연의 종결기능, 연과 연 사이를 분리시켜주는 분리기능, 노래를 가창할 때 흥을 돋우어 주는 조흥 기능을 하고 있다. 박병채는 조율음(調律音), 즉 현성(絃聲)을 맞추기 우한 악기의 의성어, 날나리(태평소) 계통의 악기 소리라고 보았다. 정병욱은 '얄리 얄라' 등을 날나리의 구음으로 '셩'을 바라나 징의 구음으로 보았다. 또 고려 무가의 부분적 차용이라는 주술적 의미로도 볼 수 있다.

32)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pp.253-255.

그런데 청산별곡의 화자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후렴은 밝은 어구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궁중 속악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조동일은 궁중 속악은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구가하는 노래라야 어울리기에 사설은 바꾸어 놓지 않았어도 여음은 본사의 애수를 낙천적으로 명랑성으로 전환시켜 생의 윤활유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산별곡>의 구성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4단 구성으로 기(1연)는 청산을 그리는 소망을 노래했고, 승(2-5연)은 청산에서 겪는 고독과 슬픔, 전(6-7연)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 결(8연)은 술에 취하여 시름과 비애를 잊고자 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산-바다의 대칭적 2단 구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연이 청산의 노래이고, 5-8연이 바다의 노래이며, 5연과 6연이 전승과정에서 바뀌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이다.

㉱ 정리하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한다.

◈ 형성 평가 ◈

(　　)반 (　　)번　　이름(　　)

1. 문학과 다른 예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쓰시오.
   차이점 :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한다.
   공통점 : 미(아름다움)를 추구한다.

2. 시와 노래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무엇인가?
   음악성(율격 의식)

3.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의 운율 구조는?
3・3・2조의 3음보

6. 이 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5
① 민요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② ‘ㄹ, ㅁ'음은 경쾌한 리듬감을 준다.
③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④ 3·3·2조의 3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다.
⑤자연귀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7. 청산별곡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항에 0표 해 보자.
(1) 자연에 대한 사랑이 주제이다.( )
(2)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0)
(3) 낭만과 풍류의 정취가 들어 있다.( )
(4)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되었다.(0)
(5) 이 노래의 바탕에는 우리 삶이 시름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0)
(6) 이 시(전 8장) 전체로 보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여기까지가 본 수업에 대한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고어로 표기되어 있고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지도안에 길게 설명을 해 놓았고, 작품의 전반적인 학습요소들을 세세히 설명해 놓았으나 교사의 재량과 학습목표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본 수업을 바탕으로, 다음의 심화된 교수-학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심화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은 그 당대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보편적인 조건일 수도 있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 다를지라도 지금의 독자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 보편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 된다.

작품을 당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때, 그 작품이 놓여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청산별곡>이 어느 시기에 창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고려 후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작자층에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화자를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고 <청산별곡>의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또한 <청산별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과 서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청산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 장은 <청산별곡>을 역사적인 맥락과 탈역사적인 맥락을 활용하여 심화 학습으로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법

<청산별곡>은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 화자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청산별곡>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① <청산별곡>의 역사성

<청산별곡>은 『악장가사(樂章歌詞)』와『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 실려 있고, 옛 문헌에서 그 제목이나 해설을 찾을 수 없어 어느 때에 누가 지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있다.

이 <청산별곡>의 문학적 본질을 구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 결과 작품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자료의 한계, 고려시대의 언어에 대한 학자간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움과 작자층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청산별곡>이 우리 역사의 어느 때에 불려졌는지 그 시대와 그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을 한다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 교과서에 실린 <청산별곡>의 주제를 살펴 본 것처럼, 실연한 자의 괴로운 마음을 노래한 것, 어지러운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선비의 심정을 읊은 것, 살길을 찾아 헤매는 유랑농민의 처지를 노래한 것 등이다. 실연당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것은 역사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나머지 주제는 역사성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속요는 고려 민중의 정서가 담겨 있으므로 그 시대를 살펴봐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청산별곡>의 생성시기를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특정한 시기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본다.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 정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별곡>의 주제를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고려 후기로 넓혀 여러 역사서를 참고하여

<청산별곡>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그 작자에 대해 다루어 보는 것이 주제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습자들은 <청산별곡>의 시적 자아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고 있으나 주제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시적 자아는 현실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노래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제를 인식하고 있으면, 고려 후기의 사회상을 살펴보며 <청산별곡>의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 등을 자료로 삼도록 한다. 고려 후기의 사회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를 조사할 것인지 확실하게 지정하여 학습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찾아오지 않도록 한다.

무신집권, 농민・천민의 봉기, 몽고의 침입(40년간 강화 천도) 등으로 주제를 정하면 <청산별곡>의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 찾고 <청산별곡>의 주제와 연관해서 작품을 이해해 보고, 작품을 해석하여 한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 무신집권기의 문인들의 삶

무신집권과 <청산별곡>은 지식인의 술노래라는 면에 관련을 삼도록 한다. 무신집권으로 인해 문신이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문신과 무신의 대립에서 발생한 무신집권기를 조사하도록 하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더 좁힌다면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문신(文臣)이나 문인(文人)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은거한 문인들로 대표되는 죽림고회칠현[33] 등을 조사 하도록 한다.

---

33) 이들은 세태를 비판하며 산수나 찾아 즐기며 고결한 문학을 한다고 표방하면서,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 일곱이서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본따 죽림고회(竹林高會)를 연다고 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3, p.18.).

<조사의 예>

고려시대의 혼란은 고려시대 귀족사회의 모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벌귀족들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확대하여 특권적 지위를 누려 농민들의 토지까지 수탈해 유랑민이 늘어났다. 또 양반제도를 만들어 문반과 무반을 하나의 관계 안에 일원적으로 편성하고 법제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문반에 비해서 무반에 대한 차별이 심하였다. 의종24년에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은 무자비하게 문신들을 숙청[34]하였으며,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추대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상당수 문신들은 무신들의 학정과 횡포 때문에 현실을 비판하여 은거하였고 생활기반을 잃어 불우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당시에 벼슬길에 나아가 출세를 지향하기보다는 자연에 묻혀 학문과 세태를 걱정, 비판하는 은거 문인들이 있었는데, '죽림고회칠현(竹林高會七賢)'으로 당대에 이름난 문인들인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항(皇甫抗),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 등이다. 이들은 무인정권이 수립된 이후 문인을 숙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문신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지자 난세를 피하여 서로 의를 맺어 벗으로 삼고 시와 술을 즐기며 문학에 열중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청산별곡>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의 주제는 지식인의 술노래이다.

<청산별곡>에서 시적 자아는 청산과 바다로 떠나고자 하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내는 내용으로 볼 때, 지식인들의 노래라는 주제가 나타난 것이다. 무신집권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은둔한 문신들이 언젠가 좋은 때를 기다리며 부른 노래가 <청산별곡>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34) 명종 3년(1173)9월 김보당의 반란 때에는 경인란(무신란)에 살아남은 문신들이 다시 참화를 입어 10일 간에 걸쳐 모두 살해 되었거나 강물에 던져져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서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문신의 수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pp.216-217)

㉯ 농민, 천민의 봉기

농민, 천민의 봉기와 관련된 <청산별곡>의 주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유랑민의 삶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왜 농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였고 그것이 농민, 천민의 봉기로 이어졌는지 조사해보면 <청산별곡>의 내용과 관련되어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고려 후기에 유망민이 많아진 까닭[35], 망이 망소이의 난, 경주민란, 만적의 난, 김사미의 봉기, 효심의 봉기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의 예>

무신정권기에 발생했던 농민·천민의 봉기는 고려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이 폭발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무신집권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우선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이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도 국가의 기강은 더욱 문란해졌다. 무신권력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 지방관의 가렴주구를 감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했다[36]. 이렇게 고려 중기 이후 권세가, 지방관, 향리 층의 수탈은 백성들을 유민으로 떠돌게 하거나 도적 떼가 되게 하였다. 고려사회가 문벌귀족 사회로 그 성격이 굳어짐에 따라 귀족계급에 의한 토지 겸병과 농민에 대한 과중한 수단으로 농민은 궁핍해졌고 유민이 되기도 하였다. 무신란으로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더한 수탈로 농민들은 더욱 곤궁해졌다.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집권자들의 가중된 수탈과 신분질서의 붕괴로 인한 하극상 풍조가 농민과 천민들을 자극하였고, 특히 부곡, 소에 살던 하층민들이 가중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면서 봉기하였다. 민란의 예로는 망이 망소이의 난, 경주민란, 만적의 난, 김사미의 봉기, 효심의 봉기를 들 수 있다.

35) 인종 대에 이자겸과 묘청의 난이 발생하여 집권층 내부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됨으로써 중앙집권체제가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인종 대 이래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에 위배되는 여러 귀족들을 숙청하였으나, 문신 지배층의 압력과 그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강화하였으므로 농민들의 유망이 더욱 늘어갔다.

무신집권기의 민란의 특징은 농민의 봉기뿐 아니라 천민, 노비들도 함께 가담하였는데 이들은 천민신분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모두 최충헌의 집권 후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나 우리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청산별곡>의 주제 중 삶의 터전을 상실한 백성이 자연을 떠돌면서 부른 노래라는 견해, 무신집권기에 지배층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백성들의 노래라는 견해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조사한 내용과 작품의 주제가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 내용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의 내용 중 시적 자아가 떠나온 '물아래'를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장면이 있다. 시적 자아는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서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산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자신이 농사 짓고 살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랑민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산별곡>의 화자를 농토를 잃고 유랑하는 농민으로 볼 수도 있고, 민란에 참여한 하층민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몽고의 침입(40년간 강화 천도)

몽고의 침입과 관련된 <청산별곡>의 주제는 몽고와의 전쟁을 위해 조정의 시책에 따라 산성과 해도로 피하면서 떠돌던 피난민의 노래라는 견해이다.

몽고와의 전쟁을 전부 다 조사해야 하는 것 보다 작품과 관련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까닭,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내려진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피난민의 노래라는 견해와 연결 짓도록 한다.

<조사의 예>

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65.

고종 18년(1231)때에 1차 침략 후, 강화를 맺은 몽고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간섭해 오고, 몽고가 다시 침입한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집권자인 최우(崔瑀)는 강화 천도를 주장하고 그 뜻을 관철시켰다. 고종 19년(1232) 6월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몽고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것은 몽고군이 육지에서는 강할지라도 수군에서 밀릴 것이라는 작전에서였다.

강화도로 천도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관료들 같은 고위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강화 천도 시에 백성들에게도 산성과 해도로 피난하라[37]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없었다. 이러한 기록은 고종 41년(1254)[3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조정이 몽고의 약점을 노려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적중했으나 전 국토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몽고의 침입으로 국토는 극도로 황폐해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 정권은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서두르기는커녕, 가혹한 수탈로 농촌 경제가 파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최씨 정권은 마지막 집권자였던 최의가 피살당함으로써 4대에 걸쳐 60여 년 간 이어 온 최씨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에 원종은 1270년에 드디어 몽고와 화의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고려의 백성들은 몽고와의 긴 전쟁과 최씨 정권의 수탈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난리를 피하며 목숨을 부지하던 피난민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로 불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산성과 해도로 피난을 가라는 기록을 볼 때, 청산은 산성(山城), 바다는 해도(海島)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산별곡>의 화자는 청산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데 역사 기록에서도 당시 피난민들이 산성에서 해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7)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 6월, "又遣使諸道 徒民山城海島",p.404.

38) 고려사절요 권 17, 고종 41년 2월, "遣使諸道 審山城海島避難之處",p.447.(모든 도로 하여금 산성과 해도로 피난지를 삼아라.)

몽고 침략에서 청산과 바다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백성들은 집을 나와 유랑생활을 시작한다. 피난지로 청산과 바다로 떠났으나 그곳은 우리가 원형 상징으로 생각하는 이상향의 공간은 아니다. 혼란한 사회상황으로 인해 떠밀려가는 유랑민의 실제적인 고통의 도피처임을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품과 역사 기록을 연계하여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산별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시적 자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청산별곡>은 위에서처럼 시적 자아가 유랑농민, 민란에 참가한 백성, 무신집권기에 쫓겨난 문인, 몽고침입시의 피난민 등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교수-학습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화자를 추적해 본다면, 학습자들의 감상 능력을 한층 더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시적 자아의 상황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또한 현실 도피적이나 혹은 체념적인 삶의 자세도 함께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회적 배경에 연관짓는다면 학습자들의 감상의 폭도 넓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고려 후기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였음을 자료 조사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격동기를 겪은 백성들은 그 한을 노래로 불렀을 것이고, <청산별곡>은 고려 후기를 살았던 다양한 백성들의 소리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의 <청산별곡>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다음의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하고, 학습자가 작품을 자기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②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에서 조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청산별곡>의 작품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수행평가로 적용해 보겠다.

학습자들이 조사한 역사적 상황은 수업 시간이 한정되는 문제로 인해 깊게 다룰 수는 없다. 또한 <청산별곡>의 생성 배경을 재구해 볼 수는 있지만, 정설은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산별곡>이 고려 후기의 작품임을 알고 학습자들 스스로 왜 이러한 작품이 생겼는지 다양한 자료를 찾고 자료로서의 한계는 자신들의 상상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 장에서 다루는 <청산별곡>의 역사적 맥락을 살필 때는 수업시간 외의 수행평가로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도록 한다.

조별활동은 연구 보고서법[39]을 활용하고, 개별 활동은 서술형 검사법[40], 논술형 검사법[41]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 연구 보고서법을 활용한 조별 활동

39) 일정 기간 동안 교과 내 또는 범교과 영역에서 학습자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연구 주제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 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평가 방법이다. 연구 주제와 범위에 따라 개인 연구를 계획할 수도 있고, 소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40) 지식 영역으로 알려진 언어 영역의 개념을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서술식으로 설명하는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41)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장을 편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 글을 쓰게 한 후 이를 평가하는데 주어진 과제에 맞게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방법의 핵심이다.

조별 학습을 통해 서로 도와 가며 학습을 하도록 한다. 모든 조원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자료 찾기를 분담하도록 한다. 조별 활동은 조원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조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제와 연관하여 <청산별곡>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 고려 후기 사회의 배경을 조사한 뒤, <청산별곡>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청산별곡>의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견은 매우 다양하다. 그 이견에 따라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당시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조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국사책, 역사서, 비디오, 인터넷 검색 자료 등)를 찾아 조사해 보고, <청산별곡>과 연계하여, 화자의 입장에서 <청산별곡>을 해석해 보자.

1조 : <청산별곡>의 화자가 무신집권기의 낙향한 지식인이라고 할 때(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낙향한 문신들이 언젠가 좋은 때를 기다리며 청산과 바다로 피하여 부른 노래)

2조 : <청산별곡>의 화자가 민란이 일어날 때의 농민과 천민이라고 할 때(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등)

3조 :<청산별곡>의 화자가 몽고 전쟁 때의 강제로 이주되어야 했던 피난민이라고 할 때,(백성들의 강제 이주로 볼 경우 : 전란의 와중에 섬이나 산성 등으로 강제 이주 당한 피난민들의 노래, 산성해도입보(청산, 바다))

4조 : 고려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침입이 있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식민시대 등). 그 시대에는 어떠한 민요가 있었는지 그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활동을 위한 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모은 자료 중 주제에 알맞은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내용, 정보 확인).
(2)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듣기-말하기).
(3) <청산별곡>과 역사적인 배경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4) <청산별곡>에 나타난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조를 나눈다. 4조로 하고, 한 조당 9명을 구성원으로 한다.

사회・역사적 배경은 앞서 조사한 역사 자료들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덧붙여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이때는 미리 교사가 사회・역사와 관련된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 몽고 항쟁 비디오[42] 같은 시청각 자료의 제목과 출처를 알려주어 학습자들이 자료 찾기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관계된 기록과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찾아낸 정보가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 보면서 국어 생활에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모은 자료를 조원들과 토의를 통하여 종합한다.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므로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듣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 사회적인 배경과 <청산별곡>의 화자를 연계해서 재구성할 때는 각 조에게 제시해 준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석한다.

또한 모든 활동은 기록을 하고 증거 자료들은 별도로 첨부한다. 각자 찾은 자료들도 함께 모으고 그 중에 필요한 정보들은 보고서에 작성한다.

42) 영상자료는 EBS, KBS '역사스페셜'등의 역사관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평가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뽑았는지 알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은 수행평가를 평가할 기준표인데 채점 기준에 따라 각 조를 평가한다.

채점기준	구분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았는가?	상, 중, 하
주제에 맞게 보고서의 내용이 잘 짜여졌는가?	상, 중, 하
서로 협동하여 준비했는가?	상, 중, 하
재구성하였을 때 학생들의 상상력이 잘 나타났는가?	상, 중, 하
발표 시의 태도는 적극적이었는가?	상, 중, 하

<연구 보고서의 예>

연구 보고서

( )반 (1)조

1. 주제

〈청산별곡〉의 화자가 무신집권기에 자연 속으로 도피한 지식인이라고 추정해 본다.

2. 역사적 자료

1170년(예종 24년)에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은 무자비하게 문신들을 숙청하였으며, 예종을 폐하고 명종을 추대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상당수의 문인들이 무신들의 학정과 횡포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여 승려가 되거나 은거하였고, 생활기반을 잃어 불우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사』의 세가편, 열전 등을 보면 당시의 문인들 중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연에 묻혀 학문과 세태를 걱정, 비판한 은거 문인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려시대의 죽림칠현(竹林七賢) -이인로(李仁老),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항(皇甫抗),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이다. 원래 죽림칠현은 중국 위(魏)·진(晉)의 정권교체기에 정치권력에는

등을 돌리고 죽림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를 일컫는다.

이들 고려 죽림칠현은 무인정권이 수립된 이후 문인을 숙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문신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지자 난세를 피하여 서로 의를 맺어 벗으로 삼고 시와 술을 즐기며 문학에 열중하였다.

이인로와 조통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문사(文士)로서 불우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의 문학 모임을 죽림고회(竹林高會)라고도 불렀으며 핵심인물은 이인로, 임춘, 오세재였다. 이 모임은 당시 문단을 대표했고 그 영향력도 상당했으나 이들이 매일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자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무신집권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낙향한 문신들이 언젠가 좋은 때를 기다리며 청산과 바다로 피하여 부른 노래가 〈청산별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사 상황과 계하여 해석하기

〈청산별곡〉의 1연을 보면, 청산에 살고 싶어 한다. 여기서 청산은 현실과 대립된 이미지로 화자가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래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산에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현실은 무신정권에 의해 무신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분열과 갈등, 괴로움 등이 뒤섞인 곳이므로 화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6연에서 화자는 바다로 가고 싶어 한다. 바다도 청산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상황을 벗어나 자연공간으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2연과 3연에는 '새'가 등장한다. 무신집권기의 최충헌은 자기를 잘 따르고 아부하는 인물을 총애하여 측근에 두었고, 당시 문인들은 권력에 등용되기 위하여 비판적인 글 대신에 최충헌을 찬양하는 글을 지었다. 그러면서 최충헌 정권하의 문인들은 부정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순종하는 비굴한 삶을 살았다.

'새'를 이들로 비유한다면, 지배계층 즉 입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기회주의적 인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연의 '믈 아래'는 청산과 대립되는 개념인 속세로 보는데, '새'를 무신정권에 빌붙은 문인이라고 하면, '믈 아래'로 날아간 '새'라는 의미에서 무신정권의 권력의 그늘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잉 무든 장글란'은 무신들은 칼을 사용하므로 '장글란'을 병기로 해석하여 오래도록 사용하여 이가 무디어진 병기로 해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연은 화자가 자연 속에 은일하며 살아가는데 고독감과 상념으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토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게한 현실세계로부터 나온 고통과 소외감이 극대화된 것이다.

5연은 어딘가에서 날아온 돌에 화자가 맞으며 고통이 가중된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문제인 것이다. 무신정권으로 인해 갑자기 벼슬길이 막혀버린 문신들의 날벼락 같은 고통인 것이다. 미워한 사람도 사랑한 사람도 없는데 이유 없이 돌에 맞아서 울어야 하는 화자는 이러한 사회상에서의 삶의 고통을 내포하고 있고 절망감이 돌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7연은 에정지에 가다가 사슴이 해금을 켜는 형상을 화자가 듣게 된다. 이는 당시 고려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풍자한 산대놀이의 광경으로 보며 고려 무신집권기의 지배계층의 향락과 타락한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에정지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7연과 8연의 문장전체를 살필 때, 청산도, 바다도 아닌 속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화자는 도피처인 청산과 바다를 찾았으나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속세로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다.

8연은 화자가 모순과 울분을 술로서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무신정권으로 인해 힘으로 나라를 억압하고, 아부로 권력에 빌붙어 사는 지배층의 모순되는 사회로 인해서 화자는 심리적인 갈등이 심해진다. 현실에 어울릴 수 없는 화자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술로써 괴로움을 잊어야 할 수밖에 없다. '내 엇디 ᄒᆞ리잇고'처럼 체념어린 달관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

구 고서

( ) (2)

1.

〈청산별곡〉의 화자가 민란이 일어났을 때의 농민과 천민이라고 추정해본다.

2. 사 자

무신정권이 교체되는 혼란 속에서 중앙 통제력의 약화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명종, 신종, 고종 때 토지로부터 유리된 유민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 원나라 지배에 빌붙은 권문세족들이 탐욕적으로 토지겸병을 일삼으며 온갖 수탈을 자행함으로서 농민의 처지는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도망하여 산에 숨거나 녹림에 결집해 도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대표적 민란으로는 석령사(石令史)의 난,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의 난, 손청(孫淸)의 난과 경주 부근의 민란인 김사미(金沙彌)·효심(孝心)의 난 등인데, 이것을 통틀어 남적봉기(南賊蜂起)라 한 것을 보면 충청도·경상도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난 민란이다.

망이(亡伊) 또는 망소이의 난(亡所伊亂)이라고도 한다. 1176년 고려 명종 때 충청 남도 공주의 명학소에서 일어난 천민의 난. 천민 수공업자의 집단 거주 지역인 명학소에 살던 천민들이 망이, 망소이의 주도 아래 일으킨 신분 해방 운동이다. 고려 무신 정권하에서 일어난 천민의 저항 운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들은 공주를 점령한 후 북진하여 1년 반 동안 청주와 아산 등 충청도 일대와 경기도 남부까지 휩쓸었다. 정세유가 이끄는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이 난을 계기로 정부는 향, 소, 부곡 등 천민 거주 지역을 군현으로 승격시키는 등 천민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게 되었다.

고려 신종 1년(1198년)에 만적(萬積)이 중심이 된 노비 해방 운동이 일어났다. 만적은 개성의 북산에 공사 노비가 모인 자리에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네도 상전 밑에서 고생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난을 일으킬 것을 의논했다. 이에 여러 노비가 찬동하여 관노는 관청에서, 사노는 성내에서 들고일어나 권신과 상전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살라 버린 뒤에 정권을 잡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한 사노의 밀고로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노비 해방을 위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민란은 무신란으로 정권을 잡은 무인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농민들이 민전을 빼앗기고, 또한 지방관리의 횡포로 생활이 곤궁해져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 유랑하는 처지에 이르자 봉기한 것이다.

또 노비·천민은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으로서 함께 시달림을 받았으므로 서로 결합하여 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들은 천민신분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농민봉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 과 계하여 하기

이런 사회적 배경을 봤을 때, 〈청산별곡〉의 화자는 12~13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민란에 가담한 하층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청산으로 바다로 쫓기면서 끈질긴 생의 욕구와 평상인처럼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아니면 최소한 산이나 바다에서라도 정착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절박하게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의 화자는 민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청산으로 숨어들어 갈 수 밖에 없다. 화자의 곁에 있는 것이라곤 시름을 더욱 깊게 하는 새뿐인 고독한 삶이다. 청산의 삶이 고독하지만 그렇다고 물 아래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민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벗 '새'가 물 아래로 날아가지만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며 쫓겨 다녀야 하는 신세에서 민란에 참가했던 반란민들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민란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 중에 느닷없이 날아든 돌로 부상을 당해 고통으로 울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화자는 바다로 피신처를 옮겨 거기서 나마자기, 구조개로 연명해서라도 정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민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도망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신처를 향해 이동하는 중에 멀리 들려오는 해금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한가롭게 즐겼으면 싶으나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실의 고통과 자신의 시름을 독한 술로 잊으려고 한다.

〈청산별곡〉은 유랑하는 농민이 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머루나 다래, 나마자기나 구조개로 연명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유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대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구 고서

( ) (3)

1.

〈청산별곡〉의 화자가 몽고 전쟁 때의 강제로 이주되어야 했던 피난민이라고 추정해본다.

2. 사 자

몽고와의 전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 정부에서는 강화도로 천도 계획을 세운다. 강화도로 천도하는 이유는 물에 약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섬이라는 점, 육지에 가까우면서도 조수 간만의 차가 커 방어 효과가 크다는 점, 개경과의 근접성 등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고종에게 통보하고 시행을 촉구하였다. 최우의 결단으로 강화도 천도가 이루어졌고, 각 기관에 명령하여 백성들에게도 산성(山城)과 해도(海島)에 옮기도록 이주 시한과 처벌 사항까지 정하여 명하였다.

〈청산별곡〉의 핵심어는 청산과 바다이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바다에 살어리랏다"는 이러한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난리를 피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피난민들에게서 나온 노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산별곡〉의 화자를 산성과 해도로 이주하는 피난민으로 보는 것이다.

〈청산별곡〉의 화자는 산성과 해도로 피난하라는 나라의 법에 따라 피난한다. 전쟁이 주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3. 사 과 계하여 하기

1연의 화자는 산으로 피난을 한다. 머루와 다래를 먹고 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머루와 다래는 산 속의 먹을거리를 대표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그것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탄식과 한숨이 묻어나는 것이다.

2연에서 이러한 시름 때문에 화자는 울고 있다. 이주한 이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산새가 우는 소리에 자신도 슬퍼져 울게 된다.

3연에서 화자는 물 아래 갈던 사래를 쳐다본다. 평원 지대의 논과 밭을 물끄러미 보며 농사를 짓지 않아 이끼 낀 쟁기를 들지만 이것은 지금 쓸모없는 것이다. 이끼 낀 쟁기를 자신의 신세와 같다고 느끼게 된다.

4연에서는 낮의 생활도 괴롭지만 적막한 산 속의 밤의 생활은 참기 어려운 고독한 생활이다. 절망적인 순간이 나타난 것이다.

5연에서는 몽고와의 전쟁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돌에 맞아서 울어야 하는 화자는 생에 대한 운명적 체념을 하고 있는 것이다.

6연의 화자는 이번에 바다로 피난을 간다. 섬으로 피난을 가는데 바다에서는 나마자기, 구조개를 먹고 사는 삶이다. 피난지에서 나마자기, 구조개도 목숨 부지를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다.

7연은 가는 중에 '사스미 짚대에 올아서 힌금을 혀'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전쟁 중이지만 광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일과 무관하게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잠시 괴로움을 잊게 된다. 전란 중의 놀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시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피난을 다니는 현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자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자신이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을 잡으니 할 수 없이 마신다는 체념적인 어조로 이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청산별곡〉은 난리를 피하기 위하여 헤매던 고려 후기 백성들의 지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구 고서

( ) (4)

1.

고려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침입이 있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식민시대 등). 그 시대에는 어떠한 민요가 있었는지 그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사 자

우리나라 봉건 사회에서 주요한 정치문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였고, 온갖 봉건적 학정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 정치 민요는 외적을 물리치려는 백성들의 투쟁과 지배층의 학정, 비행, 부패, 타락한 생활을 야유한 노래들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민요에는 당대 역사적 현실과 백성들의 사상과 감정이 진실하게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강수월래〉-임진왜란 살펴보겠다.

3. 민요가 시대를 어떻게 영하였는가?

〈강강수월래〉-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에 전해지는 대표적인 민요에는 〈강강수월래〉가 있다. 〈강강수월래〉는 임진왜란 때 남해안 지방의 여성들이 바다로 기어드는 왜군을 감시하며 부르던 노래였다.

'강강수월래'라는 말의 뜻과 이 노래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랑캐들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변방순찰을 잘 돌자(순찰-순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노래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의 용기를 북돋우고 왜군에게 공포심을 주기위해 밤이면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부녀자로 하여금 그 주위를 돌면서 부르게 했다는 설이 있고, 또 밤에 우리 군사들이 마음 놓고 잠자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방의 여성들이 여러 명씩 패를 지어 순찰하면서 주위를 잘 경계하라는 뜻에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강강수월래〉는 남부지방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라도 지방의 〈강강수월래〉다.

이 민요의 가사에는 깊은 밤 만경창파에 거북선을 띄워놓고 왜군들의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수군의 긴장된 모습과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조국산천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의 기세 그리고 외적을 물리치고 천만년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그들의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4조의 자료는 앞서 살펴본 <청산별곡>의 역사성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원들의 조사가 필요하다. 다른 조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사가 기본 자료를 제시[43]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청산별곡>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

43) 참고서적과 참고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정기철, 고전시가퍼올리기, 역락, 2005,
조선의 민속전통편찬위원회, 민속음악, 대산출판사, 2000,
http://www.urisori.co.kr/listening/listen_region/frame_gw.htm

고 자기화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각 조가 맡은 주제를 통하여 직접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연해 보는 것이다. <청산별곡>의 화자가 지식인이라면 부채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청산별곡>을 낭독하거나, 피난민이라면 짐을 이고 지며 책가방이라도 싸서 돌아다니는 힘든 여정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민요를 조사한 조는 다룬 민요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강강수월래'를 한다면 여성들이 불렀다는데 근거하여 치마를 입고 다같이 손을 잡고 둥굴게 돌며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학습자의 내면에 재구성되고 심미적인 체험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서술형 검사법을 활용한 개별 활동

조별 활동을 통하여 <청산별곡>의 역사성을 학습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활동은 서술형 문제를 활용하여 확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1.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해 보자.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 <청산별곡> 1연 -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청산별곡> 6연 -

나) 고종 19년(1232) 6월, 최우가 왕에게 속히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주청하니,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중략)… 성중에 방을 붙여 이르기를, "출발할 기일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하고, 또

사자를 여러 도(道)로 보내어 백성을 섬이나 산성(山城)으로 옮기었다.

- 고려사절요 권16[44] -

다) 고종 43년 8월에 장군 송길유를 보내어 청주 백성을 섬으로 옮기게 하였다. 송길유가 백성들이 재물을 아끼어 옮기기를 싫어할까 염려하여 재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 일보다 먼저 최항이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주민들을 몰아서 섬 안으로 들어가는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집과 전곡을 불태워 굶어 죽은 자가 열에 아홉은 되었다.

- 고려사절요 권17[45] -

【문제】 나)와 다)의 글을 <청산별곡> 1연 '청산'과 6연 '바다'와 연관해 보자.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청산별곡>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청산별곡>은 어떤 사회상을 담고 있는 노래인지 설명하시오.

<청산별곡>은 1연의 '청산', 6연의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인 "산성해도입보책"으로 찾았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몽고 침입 시 피난민들은 산성과 해도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청산별곡>의 화자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몽고와의 전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하기로 한 집권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산성과 해도로 옮기도록 명한다. 전국의 백성들을 산성과 해도로 옮기도록 한 것은 그곳이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전에 능하지 못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화로 천도한 조정의 조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이나 바다로 피난하라는 무신정권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청산별곡〉의 화자는 급하게 청산으로 들어갔다가 견딜 수 없어 바다로 쫓겼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집과 재산을 놔두고 쉽게 떠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전쟁이 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 터전에

44) 민족문화추진회, 고려사절요2, 민족문화추진회, 1968, p.404.

45) 민족문화추진회, 고려사절요2, 민족문화추진회, 1968, p.457.

대한 집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다)의 내용처럼 백성들을 섬 안으로 보내기 위해 집과 전곡을 불태우는 일을 벌였다. 따르지 않은 백성들은 굶어 죽고, 할 수 없이 따르는 백성들은 섬으로 들어갔지만 전쟁 시에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산별곡〉의 화자를 전쟁으로 인해 피난 가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산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산과 바다는 당시로는 이상향이 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쫓겨 가거나 밀려가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래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기준	구분
몽고전쟁시의 백성들과 <청산별곡>의 화자를 잘 연결하였는가?	상, 중, 하
역사적인 상황과 <청산별곡>의 내용을 잘 재구성해보았는가?	상, 중, 하

2.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해 보자.

가)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청산별곡> 3연 -

나) 고종 19년(1232) 1월, 몽고군이 충주에 이르렀을 때 충주성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별초군이 조직되었다. 별초군은 양반 별초, 노군·잡류별초라는 신분별로 편성 했다. (노군은 관청에서 사역하는 공노비를 주축으로 이들을 임시 무장시킨 것이고, 잡류란 관청에서 종사하는 기술 잡역인이다.)

그런데 막상 몽고군이 들이닥치자 지휘관인 관리들과 양반별초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성을 방어한 것은 노군·잡류별초였다.

그러나 후에 도망했던 지휘관과 양반들이 몽고군 철수 후 돌아와 적이 약탈해 간 물건에 대한 책임을 씌워 노비를 죽이려 하여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

기도 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46] -

【문제】 고종 19년의 기록과 연계하여 볼 때, <청산별곡>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 또 화자는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논하시오.

<청산별곡>3연의 '잉무든 장글란'의 해석이 녹슨 쟁기가 아니라 녹슨 병기라는 견해를 수업시간에 배웠으므로 도출해 낼 수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청산별곡>의 가사 속에서도 역사적인 상황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청산별곡〉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을 녹슨 쟁기가 아니라, 녹슨 병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녹슨 병기를 가진 사람은 무신정변과 몽고 침략 등과 관련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직업적인 군인이었다면 매일 병기 관리를 했을 텐데 녹슨 병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녹슨 병기라도 급하게 사용해야 했을 전쟁 상황을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3연의 화자는 녹슨 병기로 힘겹게 싸워야 했던 민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보다 앞장서서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하는 관리들이 오히려 도망을 하고 오히려 몽고군이 약탈해간 물건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는 그만큼 당시의 지배층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부패했음을 뜻한다. 여기서 화자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 수 있다.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게 된 백성들은 나름대로 몽고와의 항전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몽고와 싸운 것은 고려 왕조나 무신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민족공동체를 외적의 침탈에 맞서 지키고자 주체적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민족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임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고려속요 〈청산별곡〉 가사의 한 자락에서 녹슨 병기를 들고 전쟁에 임해야 했던 고려시대 민중들의 힘겨운 상황을 알 수 있다.

4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p.216.

이 문제의 평가는 아래의 평가 기준으로 한다.

평가기준	구분
<청산별곡>의 '잉무든 장글란'과 역사적인 사건에서 민중들의 힘겨운 삶을 잘 연계했는가?	상, 중, 하

3.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해보자.

가)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짒대예 올아셔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 <청산별곡>7연 -

나) 고려 말 이색의 '구나행(驅儺行)'과 '산대잡극(山臺雜劇)'에서는 궁중나례에서 오방귀무(五方鬼舞), 사자춤, 서역의 호인희(胡人戱), 처용무, 불 토해내기, 줄 타기, 칼 삼키기, 솟대타기, 인형극,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百獸戱) 등의 놀이를 묘사했다.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거행한 나례나 중국 사신 영접시에 설치한 산대(山臺)에서 놀던 산대잡희 또는 산대희, 나희라고 불리는 놀이는 고려시대의 산대잡극이나 나희에서 연행한 놀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중략)…

고려 말 이색(1328-1396)의 한시 '구나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1구-14구)는 십이지신과 진자(侲子)들이 역귀를 쫓는 의식을 묘사하는 내용이고, 후반부(15구-28구)는 구나의식이 끝난 후 놀이꾼들이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이다. 후반부에서는 오방귀무(五方鬼舞), 사자무(獅子舞), 서역의 호인희(胡人戱), 처용무, 불 토해내기(吐火), 줄타기(步索), 칼 삼키기(呑刀), 인형극,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百獸戱) 등의 놀이를 묘사하는데, 대부분 산대 계통의 놀이이다.

(전략)…

黃犬踏碓 龍爭珠　누런 개가 방아 찧고 용은 구슬 다투고
蹌蹌百獸 如堯庭　온갖 짐승 더풀더풀 춤추니 요임금 시절 궁정 같네.

- 전경욱, 조선조 전통공연예술의 계통과 성립과정[47] -

다) 김재철의『조선연극사』에서 설명한 <만석중놀이>와 연관시키면, 유득공의 산희에 등장하는 '만석중'역시 산대 위에 설치하여 놀린 인형이 된다.

「만석중놀이」는 사월 팔일 석가탄신일에 연출하는 것이니 일종의 기형 적 무언극이다.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그들은 '꼭두각시극'에서 같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다만 관중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숨어서 끈을 잡아당겨 인형을 조종할 뿐이다. 그 무언인형극은 반주하는 음악과 조화되어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중은 저절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중략)…
「만석중」인형의 정면은 관중에게 향하고 인형 뒤에는 조종하는 사람이 숨어서 끈을 잡아당긴다. 인형과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두 발은 머리를 치게 되고 또 다른 끈을 잡아당기면 두 팔은 가슴을 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종자가 끈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동안에 만석중 인형은 쉴새 없이 얼굴과 가슴을 치고 있다. …(중략)… 「만석중놀이」는 대개 담구석에 선반을 세워 연출하는 것이지만 어느 때에는 시장 중앙에서 꼭두각시극과 함께 연행하는 때도 있으며 혹은 용, 잉어, 노루, 사슴 등은 등불을 사용하여 그림모양으로 비춰기도 한다. (김재철, 조선연극사, pp.133-141)

가슴을 통하여 팔과 다리에 연결된 줄만으로 발로 머리를 치고 팔로 가슴을 치는 동작을 연출한다. 만석중과 함께 연출된 용, 잉어, 노루, 사슴 등도 간단하게 줄로 엮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연출한다. 담 구석에 선반을 설치한 것은 인형 조종자가 숨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담장 쪽은 선반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이다. 시장의 한가운데서 공연할 때는 사방 어느 곳에서 보아도 인형 조종자가 보이지 않도록 선반을 만들어야 한다.

-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48] -

*산대잡희: 무대를 높이 가설하고 각종 놀이를 하는 것, 산대잡극이라고도 함 .
*산희:인형극, 산대와 같은 설비를 갖추고 그 위에 잡상을 세워 놀리는 놀이.
*만석중: 고려 중의 이름.

1. 가)의 '사슴'을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사슴분

장설은 고려시대에 행해진 산대잡희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나)와 다)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청산별곡> 7연의 내용이 산대잡희의 한 장면에서 따왔음을 주장하는 글을 써보자. 2. 고려시대 산대잡희에 대해 조사해보고, 당시 사회, 문화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3.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화자의 심정을 상상해보자.

문제1은 '사슴'이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나)와 다)의 산대잡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학생들은 사슴 가면으로 분장한 광대가 긴 장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산대잡극과 같은 가면극과 만석중 놀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가를 중점에 둔다.

문제2는 제시된 글뿐만 아니라 산대잡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한다. 고려시대의 당시 사회, 문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으나 자료 찾기를 어려워한다면 책 제목을 알려주고,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제3은 학생들이 화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한다.

이 문제들의 예시답안은 아래와 같다.

1. <청산별곡>의 7연의 '사 미 대예 올아셔 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를 산대잡희의 한 장면이라고 보는 사슴분장설의 견해가 있다. 이는 사슴으로 분장한 이가 높은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켜며 구경꾼들의 탄성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47) 전경욱, 조선조 전통공연예술의 계통과 성립과정, 국악원논문집11,1999.

48)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태학사,2002, pp.373-378.

고려시대의 산대잡희는 기악반주에 맞춰 온갖 탈춤과 잡희들이 상연되었다. 광대들의 연희 종목 중에는 한사람의 양 어깨에 두 아이가 올라서서 춤을 추는 동자무, 땅 위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는 근두, 밧줄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는 보색 등이 있다고 한다. <청산별곡> 7연의 내용인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의 모습이 이러한 산대잡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나)와 다)의 글에서처럼 <청산별곡>에서 보이는 '사슴분장을 한 광대가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산대잡희의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나) 글에서 각종 동물이 등장하는 가면놀이를 했고, 이색의 시에서 여러 동물의 가면으로 분장한 잡희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온갖 짐승 중에 사슴이 존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다) 글에서 인형극 '만석중놀이'에 사슴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산대극의 한 종류이므로 산대잡희에서 동물 중에 사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청산별곡> 7연의 사슴 분장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산별곡>의 이 한 연을 가지고서도 고려시대의 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 민속극 음악은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민속음악극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예술 활동을 해 온 직업적인 예술인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활동했던 것과 관련된다.

고려 후기의 정치적 사건들이었던 무신정변과 강화도 천도, 개경 환도 등 안팎의 복잡한 정세와 관련해 궁중음악에 소속되어 음악 연주 생활을 하던 악공들과 기녀들, 그리고 민간에서 노래와 춤을 전문으로 하던 창우와 각종 재주를 가진 직업적인 배우들인 광대들은 수도 개경과 각 지방에 흩어져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는 노래와 춤, 기악과 탈놀이, 각종 기예에 능한 광대들이 모여사는 부락이 개경근방에 따로 생겼다. 이러한 광대들이 사는 부락을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과 구분하기 위해 마을 어귀에 긴 장대를 세웠다.(<해동역사>권28 풍속지 잡속 고려)

그들은 해마다 개경과 지방도시 곳곳에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팔관회, 연등회에 나가 기악음악이 동반된 가무백희나 탈놀이, 각종 재주를 부리는 예술공연을 했다.

고려 후기에 민속극음악이 발전되었다는 것은 민속적인 종합 예술 형식인 '구나행(驅儺行)'과 '산대잡극(山臺雜劇)'이 성행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후기에 수도 개경에서 성행한 산대잡극은 일정한 무대에 풍을 치고 기악 반주에 맞춰 가무잡희와 잡극을 상연하는 민속적인 종합 예술의 하나로서 주로 외국 사신들을 맞아들일 때 상연되었다. '산대잡극'과 관련해 이색(1328-1396)은 "개경의 동대문으로부터 대궐문 앞에 이르기까지 '산대잡극'이 연달아 대성황을 이루는데 이것은 예전에 듣지 못했던 바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민속극이 성황을 이루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만큼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에서 활동한 직업적인 예술인들에 의해 민간 기악과 민속극 음악이 발전되어 조선시대에 이를 정도로 성행을 했으므로 당시 유행가라고 할 수 있는 〈청산별곡〉에도 그러한 장면이 실려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청산별곡〉의 7연의 화자는 산대잡희의 한 장면인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광대의 묘기를 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화자는 결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즐거워할 수 없다. 그는 이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독은 자신의 슬픈 신세를 사슴의 탈로 가리고 해금을 켜는 광대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는 사슴의 탈을 쓴 광대에게서 자신과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의 평가는 아래의 평가기준으로 한다.

평가기준	구분
<청산별곡>7연의 '사슴분장설'을 나), 다)글의 산대잡극, 만석중놀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상, 중, 하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상, 중, 하
학생의 상상력이 잘 표현되었는가?	상, 중, 하

위와 같은 조별활동과 개별 활동으로 <청산별곡>의 역사적 맥락으로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학습자들이 <청산별곡>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의 방향제시가 중요하다.

2) 탈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청산별곡> 교수-학습 방법

이 장에서는 <청산별곡> 의 보편성과 서정성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① <청산별곡> 의 보편성과 서정성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면 노래는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 노래들에는 인간 보편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랑과 이별, 인생의 희노애락, 생과 사를 노래한 작품들이 존재하며, 그 노래들이 주류를 형성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고려속요 작품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청산별곡>이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현재에도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청산별곡>의 화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세기를 거듭한 지금까지도 민중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 내부에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관계한 민족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청산별곡>은 내용적으로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담겨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작품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내용적인 보편성에 대한 교수-학습의 단계를 설정하는데, 시 낭독으로 시작된다. 첫째, 낭독 후에 <청산별곡>의 내용에 공감되는지를 학습자에게 물어본다. 둘째, 떠나고 싶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또 실행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학습자가 <청산별곡>의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공감이 가지 않는 학습자들은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동료 학습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김대행은 <청산별곡>에 대해 욕망과 갈등의 보편성으로 이해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학습자에게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노래는 온 세상 어디든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인데, 다만 거기 함축된 하나의 조건은 '지금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곳만 빼고'라는 것이다. 그러니 내 지금 사는 곳을 떠나 이 세상 그 어디인가 저 먼 딴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이 된다.
>
> 지금 자신이 몸담아 있는 곳이 아닌 그 어딘가에 늘 그려 오던 그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그리며 사는 것은 인간이면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련한 꿈이 아니겠는가. 하루의 삶이 고단할 때, 직장의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혼탁한 도회지에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것을 느낄 때, 우리 육신과 마음을 아늑하게 해 줄 저 먼 곳 어딘가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
> 이를 일러 필자는 '피안지향성'으로 명명한 바가 있는데, 청산별곡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유달리 호소하는 바가 큰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꿈을 건드려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49]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 있음을 학습자들도 다 알고 있고,

49)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pp.48-49.

자신들도 꿈꾸는 또는 바라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청산별곡>에서도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인간 보편적인 것임을 학습자들이 공감해야 한다.

여기서 학습자는 더 나아가 <청산별곡>이 이상향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시적 화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도 감상해야 한다.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피안을 지향하고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삶의 본질이 현실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막연하게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별곡>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상 피안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의 고통을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산별곡>의 화자는 현재의 상황에 슬픔, 고독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학습자가 감상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이미 본시 학습에서 감상에 앞서 설명되어 학습자가 숙지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상상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주는 감동은 시름 많은 세상, 그래서 어디로든 떠나버렸으면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있음을 학습자가 느낀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작품 감상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시에서도 <청산별곡>과 같은 내용적 보편성이 있는 작품을 찾아보자는 활동을 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또 이러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서정미는 다른 장르의 작품이나 시공을 초월한 다른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음을 다른 작품 비교를 통해 작품 감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 보편적인 정서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서 더 깊이 있는 감상이 되도록 한다.

다음 형식의 측면에서는 <청산별곡>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나 리듬감에서 오는 음악성을 교수-학습하는 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말의 형식적인 면에서의 아름다움도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낭독하면서 느끼는 것으로 활동이 시작된다.

첫째, 낭독을 하여 낭독에서 느껴지는 음악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자세히 읽기를 한다. 여기서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는가, 리듬감이 느껴진 단어, 시구, 후렴구 등을 찾아보기 활동을 통해서 작품 속 어디에서 어떤 리듬감이 생기는지, 왜 그런지 학습자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청산별곡>의 음악적 리듬감에 대해서는 본시 학습에서 형식에 대해 학습했으므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조동일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보충자료로 삼아 학습자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 제 1장을 들면 이렇다. 넉 줄이고, 세 토막이어서, 줄 수는 안정감을, 토막 수는 율동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한 장이 끝나는 곳에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 이런 규칙은 제 8장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세 토막 중에서 마지막 것은 앞의 둘보다 짧은 편이어서 한층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도 거의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50]

세 토막이라는 것은 '살어리/ 살어리/랏다'식의 3·3·2조를 말하고 3음보의 규칙적인 음보율의 반복 또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을 학습자들에게 덧붙인다. <청산별곡>의 율동감이 여기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2, p.153.

또 <청산별곡>은 음악적 리듬감을 살린 언어미가 돋보인다. 학습자들에게 그 밖에 어느 부분에서 리듬감이 살아나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반복어와 후렴구도 리듬감을 살려주는데,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가 매연마다 반복되면서 그 리듬감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도록 낭송을 하도록 한다. 이 후렴구들은 'ㄹ' 이나 'ㅇ' 같은 울림소리들이어서 리듬감이 생기고 있으므로 작품 속에서 그 외의 울림소리가 있는 시어들을 찾아보게 한다. '멀위랑 ᄃᆞ래랑'이나 '이링공 뎌링공' 같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학습자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삶의 안식처로 '청산'을 원했고, 다시 '바다'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안식처가 되지 못하여 독한 술로써 생의 비애를 달래는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이상향으로 숨어든다고 해서 풀어질 수 없는 현실적 삶의 고뇌를 시적자아가 인식하여, 술로 달랠 수 밖에 없는 낙천적인 생활 태도를 볼 수 있다. 인생살이의 고통이 우수적(優秀的)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ㄹ, ㅇ' 음에서 느껴지는 경쾌한 음악성이 잘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면 형식적인 면에서 감상은 성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리듬감을 느껴보도록 리듬감이 강한 시를 찾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한국 시가 고유의 리듬감과 전통적인 정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교수-학습하면 보편적 문학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비판적으로 수용해야한다. 작품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좋은 감상법이 될

수 없다. <청산별곡>의 화자는 삶에 대한 고통을 술로써 풀어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판적 감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청산'의 세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청산별곡>의 보편성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작품을 자기 내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산별곡>의 내용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품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연에서 '청산'은 세속의 고뇌에서 벗어난 안식처로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청산에서 나는 머루와 다래를 먹으면서 '현실'에서 부딪치는 삶의 괴로움을 청산에서 떨쳐 버리고 살고 싶다는 것으로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복을 통하여 생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각 연의 후렴구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는, 각 연의 괴로움과 반대로 'ㄹ,ㅇ'음을 연속함으로써 경쾌한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어 생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낙천성을 보여주고 있다.

2연에서 '새'는 비탄 속에서 몸부림치는 서정적 자아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그의 분신(分身)이다. 반복을 통하여 생의 고뇌를 심화시키고 있다.

'너보다 시름(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다'며, 고독한 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연은 속세에 대한 미련에 젖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던 새'는 앞 연에서의 울던 새가 속세를 떠나가는 상황 혹은 '갈던 밭'으로 보아 속세를 바라보면서 미련에 젖어 있는 미련과 번민을 드러내고 있다. '녹이 슨, 이끼

묻은 쟁기'는 속세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연은 'ㅇ'음의 반복으로 절망과 체념 속에 엄습하는 고독을 낙천적으로 승화시킨 경쾌감을 보여 준다.

5연은 방향도 목표도 없이 던져진 맹목적인 돌에 맞아 까닭도 이유도 없이 겪는 고통을,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없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극한적인 고독을 읊고 있다. 돌은 '인간의 운명적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6연은 청산과 다른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ㄴㅁ자기, 구조개'는 도피처에서의 양식으로 '멀위, ㄷ래'와 대응된다. '바롤'은 새로운 세계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산'에 들어가 고독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도 생(生)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모색하고 있다.

7연의 '에졍지'는 '부엌'으로 속세의 비유로 '속세를 멀리 피하여 가다가 듣노라.'로 풀이하기도 하고, 혹은 '외딴 부엌' 즉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8연의 '강술'은 현실적인 고통을 초극케 하는 매개체로서 현실의 고통을 술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다. 누룩 냄새가 강렬하게 내 코로 스며들어 나를 잡으니 내 어찌 하리까? 결국은 술을 통하여 현실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미이다.

<청산별곡>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해석의 이견과 주제와 화자 등의 이견이 복잡하고 많아서 학습자들에게 모두 전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고 본다. 학습자가 <청산별곡>을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상

을 하고 다른 작품들도 감상한다면 더 넓은 문학적 안목이 키워질 것이다.

<청산별곡>의 서정시로서의 보편성을 감상한 뒤에 다음의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

②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청산별곡>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담겨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도 리듬감을 살린 언어미를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해 보겠다.

㉮ 조별활동 활용하기

이 조별활동은 서술형 검사법을 활용한다.

※조별로 <청산별곡>의 화자에 정서에 대해서 토의하여 보자.

-조원이 하나씩 맡은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1. 각 조장을 중심으로 각 연의 뜻을 알아본다.
2. 각 연의 화자는 어떤 심정인가?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화자의 심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

1. 1연과 6연은 현실도피로 청산과 바다에서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청산'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또 학생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지고, <청산별곡>의 화자의 심정이 되는가?

예시답안: 청산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는 1연은 현실적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지만 무릉도원처럼 완전한 이상향은 아니다. 이 청산은 머루, 다래를 먹으며 사는 곳은 최소한의 배고픔을 겨우 면할 정도기 때문이다.

내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질 때는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압박감 때문에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가 나빠서 선생님과 부모님을 뵐 낯이 없을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은 〈청산별곡〉의 화자가 청산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심정과 같이 절박하다.

2. 2연은 삶의 비애로 새에 의탁한 화자 자신이 비애를 느끼고 있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해 볼 때는 언제인가?

→ 2연에서 화자는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 새의 울음소리는 현실을 떠나 청산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화자에게 근심을 주고 있다. 새가 운다고 해서 자신의 근심이 쌓이거나, 울음을 그친다고 해서 자신의 근심이 해소되지 않는데 새를 탓하고 있다. 이 연의 화자는 새가 우는 소리에서 감정이입이 되어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험 공부로 밤늦게 잠을 자려는데 내일 아침에 있을 시험이 걱정되어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잠 때를 놓치게 되었다.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지각하지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방 안에 있는 시계 침 '똑딱'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시끄러워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시계를 탓하게 된다. 시계소리가 커져 갈 수록 잠잘 시간은 적어지고 반대로 시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져 가는 것이다. 이럴 때가 2연에서 화자의 심경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본다.

평소에는 시계소리나 새 우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데, 밤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이런 소리가 더 커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신의 탓이 아닌 다른 사물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3. 3연의 화자는 떠나온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 3연에서 화자는 새가 떠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화자는 현실을 떠나 청산으로 들어왔는데 새는 물아래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왔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이끼 묻은 쟁기'를 들어본다. 새는 자유롭게 세상과 청산을 오고가지만 화자는 새처럼 오고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에 대한 부러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3연을 나의 경험에 적용해 보면, 여름이 되면 가족 친지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나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여행에서 빠지게 되었다. 방학 동안 학원을 다니게 되어서 여행에 따라가면 학원을 며칠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정 가고 싶으면 학원을 빠지고 따라 나서라고 했지만, 학원을 빠지면 그만큼 수업에 지장이 되어서 안 가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이 여행가는 날, 나는 집 앞에서 배웅을 할 때, 정말 따라 가고 싶었으나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 나의 마음이 3연의 화자와 같지 않을까 싶다.

4. 4연의 화자는 처절한 고독으로 인해 번민을 한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4연에서 화자는 낮에는 머루와 다래를 따러 다니는 등 소일거리로 지냈는데, 깜깜한 산속의 긴긴 밤은 또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깊은 산은 아침이 늦게 오고, 밤은 일찍 찾아온다. 따라서 청산에서 밤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화자는 외로워하고 있다. 게다가 깊은 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화자에게는 올 사람도 가서 만날 사람도 없어서 처절한 고독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4연을 나의 경험에 적용해 보면, 부모님을 따라 설악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었다. 등산을 하다 날이 저물어 어느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다. 가방을 가볍게 하려고 물과 먹을거리를 최소한 들고 오느라 책도, 게임기도 없었다. 산 속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정말이지 적막한 사찰에서 깜깜하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방안에서 이른 잠을 잤다. 피곤해서 금세 곯아떨어지기는 했지만 새벽 2시에 깼다. 잠자리가 낯설어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할 일 없이 눈만 깜빡깜빡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은 철야기도에 참석하셔서 나 혼자 방을 지키고 앉았는데 그 시간이 4연의 화자의 심정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5연의 화자는 자신의 고독과 슬픔이 어쩔 수 없는 운명임을 한탄한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 5연은 화자의 고독한 상황, 시름하는 상황에 대한 까닭을 제시하는 연이다. 화자는 갑자기 돌에 맞는다. 이 돌은 어디에다 던지는 것인지, 누구를 맞추려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화자에게 날아와 때리는 것이다. 갑자기 날아온 돌 때문에 화자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구를 미워해서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서 배신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날아온 돌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날아든 돌에 맞은 상황은 현실적 어려움과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이 느낀 고독과 슬픔이 운명 때문이라고 돌린다. 따라서 청산으로 도피하였으나 이는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 어디를 가든 그 운명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5연의 화자를 경험에 적용해 보면, 우리 대학입시제도와 연관을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당장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바꿀 때마다 따를 수밖에 없다. 언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신을 중시한다. 교육부에서도 고심하여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겠지만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서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울고 웃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 5연의 화자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육부 당국자들 때문에 우리는 입시생활을 지금부터 3년 동안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 바뀐 입시정책이 올고ㅣ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태어난 해를 원망할 뿐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거니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5연의 화자와 비슷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된다.

6. 7연의 화자는 기적을 기대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 7연에서 화자는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 청산에서 바다로 가는 중에 사슴이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러한 일은 기적 같은 일이므로 답답한 마음에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7연의 화자는 기적을 기대할 만큼 삶이 절박했다. 나에게는 동7생과 장난을 하다가 어머니가 아끼시는 도자기를 깼을 때가 그 때였던 것 같다. 동생과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다가 안 잡히려고 살짝 비켜서는 순간 도자기가 있는 장식장에 부딪혔을 때 사건이 터지고야 만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 도자기까지 깨버린 이 상황이 나에게 딱 5분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겨서 장난을 그만둘 수 있었다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7연의 화자와는 수준이 다르지만 그 당시 나로서는 나름대로 절박하였기 때문에 7연의 화자의 상황을 이해할 것 같다.

7. 8연의 화자는 그 절박하고 괴로운 심정을 술로 달래려고 한다. 화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화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 8연에서 화자는 가다가 술독에서 익고 있는 진한 술냄새를 맡는다. 누룩냄새가 몹시 나면서 나를 붙잡는데 나도 마시고 싶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화자는 청산에서의 삶처럼 바다나 다른 곳에서도 현실의 고뇌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술이나 마시면서 스스로의 괴로움을 달래보고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푼다. 7연의 화자는 어른이라서 술을 마시며 이러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지만, 나는 계속 먹는 것으로 걱정거리를 잊으려 한다. 많이 먹고 나서는 곧 살이 찔 것을 걱정하지만 먹고 있는 순간은 나름대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는 만큼 당연히 살이 찔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현실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청산별곡>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연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각 조에 같은 질문지를 주고 활동하는 것이다. 7명씩 한 조를 이루어 각각 1연씩 맡아 <청산별곡> 전 8연의 내용을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를 자신의 경험담과 관련해

서 발표한다.

예시 답안으로는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으나, 다양한 견해를 근거로 한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조에서 각 각 1연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발표를 하므로 교사의 평가와 동료의 평가 두 가지를 함께 하여 학습자들에게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동료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	구분
과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상, 중, 하
발표할 때에 태도는 진지하였는가?	상, 중, 하

교사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구분
자신이 맡은 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는가?	상, 중, 하
작품의 해석과 자신의 경험담이 연관이 있는가?	상, 중, 하

㉯ 서술형 검사법을 활용한 개별 활동

개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이 얼마나 진전되어 왔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개별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1. 다음 설명을 토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청산별곡과 민요의 영향 관계를 작품에서 논거를 찾아 서술하시오.

<청산별곡>은 민간에서 유행하다 궁중 속악으로 수용되면서 궁중 음악으로서의 요구에 맞게 개작, 변용의 과정을 겪었다. <청산별곡>이 동일한 어구의

반복적 표현이 많다는 형식적 특징이 민요와 유사하다. 이는 <청산별곡>을 다음의 민요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시집살이요(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 보고저즌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 시집살이 어떻뎁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椒-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 십 리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 열 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同壻) 하나 할림새요 /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새요 / 나 하나만 썩는샐세.
..... <이하생략> .....

고려속요를 민요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작자가 미상이며 창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점, 후렴구와 반복어구 사용, 대부분 연장체라는 점, 반어 사용, 국문으로 정착되기 전에는 구비문학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서민들의 애환이나 남녀간의 사랑을 주된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내용상의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위의 글에서 '동일한 어구의 반복적 표현이 많아 형식적 특징이 민요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므로 청산별곡과 민요의 영향관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집살이요>의 '형님 온다 형님온다 / 보고저즌 형님온다'

나 ‘형님 형님 사촌 형님’의 구절은 <청산별곡>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ㅂ라래 살어리랏다’의 구절과 흡사하므로 이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여 논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다.

윗 글의 내용으로 보아 〈청산별곡〉의 형태는 구전되던 민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시집살이요〉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 보고저즌/ 형님 온다'의 구절이나 '형님/ 형님/ 사촌/ 형님/'의 구절은 동일한 어구의 반복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청산별곡〉의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등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aaba 구조'로 다른 작품(〈가시리〉, 박두진의 〈해〉 등)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문제의 평가는 아래의 평가기준으로 한다.

평가기준	구분
<청산별곡>의 형식은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가?	상, 중, 하
동일한 어구가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시하였는가?	상, 중, 하

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 …(후략)… - <청산별곡> -
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1) '가'와 '나'가 동경하는 세계는 어느 곳이고, 화자의 현재 삶은 어떠한지 비교해보자.

(2) 두 시에서 음악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하시오.

<청산별곡>을 현대시와 비교하여 문학이 갖는 보편성을 학습자들이 확인하는 문제이다.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감상하면서 운율을 느끼며 <청산별곡>과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도록 한다. 말소리에 의한 아름다움으로 울림소리들의 사용이 리듬감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음악성과 내용의 서정성으로 시를 읽는 즐거움까지 느끼도록 한다.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1) 가)는 머루와 다래를 먹을 수 있는 '청산'에서의 삶을 동경한다. 또한 바다의 세계도 동경한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청산이나 바다와 같이 더 나은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나)는 하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어 한다. 그 세계는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이상세계이다. 현실인 지상세계는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은 고요하거나 평화롭지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시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려 하고, 더 나은 세계를 소망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2) 가)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얄라'의 후렴구가 있어서 음악적인 효과를 높여준다. '살어리 살어리랏다'에서처럼 유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과 아늑한 분위기를 주고,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를 형성한다.
나)도 '~하는, ~같이, ~싶다'등의 반복적인 언어 사용으로 리듬감을 주고, '색시'의 방언인 '새악시'를 사용하여 리듬감과 함께 정감있는 토속적 정취를 느끼게 하는 효과도 더한다. '햇발, 샘물' 등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어를 선택하였고, 비음과 유음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경쾌하며 밝은 느낌을 준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평가문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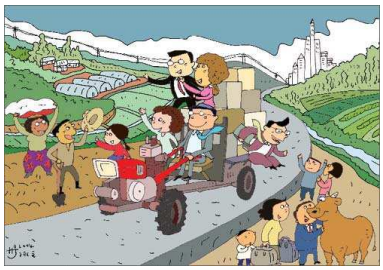
평가문항	구분
두 시가 동경하는 세계를 찾고, 화자의 현재 삶이 어떤지 시 속에서 잘 파악했는가?	상, 중, 하
두 시의 음악성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자세한 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가?	상, 중, 하

3. 아래의 기사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귀농(歸農)이 젊어진다(30~40대 성공 귀농)

지난 11월 26일 저녁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서울 종로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색적인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의 면면을 보고서는 도대체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샐러리맨, 점퍼 위에 색을 메고 온 대학생, 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50대 중년,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는 선생님 부부도 졸업생이다. 졸업식 축사를 읽는 사람은 나이가 지긋하신 스님이다.
이 졸업식은 지난 9월 10일부터 두 달 반 동안 진행됐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불교귀농학교 15회 졸업식.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이정호 사무처장은 '아름다운' 귀농에 대해 냉정하기 짝이 없는 말을 던졌다.
"여기 계신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직장도 번듯한데 곡괭이질 하러 시골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죠."

'직업 전환' 아닌 '삶의 '



졸업생 곽우석(37)씨는 대구 경북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샐러리맨이다. 곽씨는 교사인 아내와 함께 맞벌이 하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돈도 벌었고, 직장도 남부럽지 않다. 소비 규모도 큰 편이라 곽씨의 말처럼 '버는 만큼 펑펑' 써봤다. 이런 곽씨가 왜 '가난한 귀농'을 꿈꾸게 됐을까.

"우리가 상생(相生)을 얘기하는데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IT쪽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닥에선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둘 중 하나죠. 도시에선 제가 바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돈이 최고'라지만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곽씨는 3~4년 이내에 농촌으로 귀농할 계획이다. 그러나 곽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다. "고향으로 가면 분명히 '미친 놈' 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소신과 철학을 설명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시작됐던 도시인들의 농촌으로의 탈출행렬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 가을로 15회째를 맞고 있는 불교귀농학교의 입학생은 1998~2000년 사이 매 학기 40~50명씩 등록하다가 20~3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다시 40~5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귀농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특성은 예전과는 다르다. 이정호 사무처장은 "예전엔 귀농자들이 '직업의 전환'으로 귀농을 선택했지만, 최근의 귀농자들은 '삶의 전환'으로 귀농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직장에서 명퇴한 50~60대 장년층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직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거나 잘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60% 이상입니다. 또 예전에는 남편들이 주도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부가 함께 귀농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업도 천차만별이라 선생님, 한의사, 목사님, 주부, 대학생, 직장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월급 받아서 행복 수 있을까…"

젊은 고학력자들이 귀농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부가 함께 귀농학교에 등록한 서승국(39)·노지숙(39) 부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인이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간소외 문제가 귀농을 꿈꾸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일에 파묻혀 있을 때는 잊고 있다가도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매달 받는 월급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많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귀농학교는 귀농을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낭만적 귀농에 대한 환상을 깨는

곳이다. 서씨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사람이 내려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정말 수입이 줄었을 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농학교에서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귀농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불교귀농학교, 실상사 귀농학교 외에 전국귀농운동본부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귀농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법도 실습을 통해 배우지만, 선배 귀농자들을 통해 농촌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선배 귀농자들이 들려주는 귀농의 현실은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이지 않다.
3개월간 합숙하면서 귀농실습을 하는 ‘실상사 귀농학교’ 졸업생들은 50% 정도가 실제 귀농을 감행한다. 현재 귀농학교 졸업생들은 실상사 인근, 충북 괴산, 충남 홍성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다. 그러나 서울의 귀농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 실제 귀농에 나서는 사람은 10~20% 내외이다. 불교귀농학교의 경우, 15회에 걸쳐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60여명만이 귀농을 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최수옥 간사는 “귀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촌에 뿌리를 박고 정착을 하기 전까지는 시골로 ‘이사’를 간 것일 뿐”이라면서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서너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육체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가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귀농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석우 주간조선 기자(yep249@chosun.com)2004/12/30

(1) 기사에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귀농을 택했는가?

(2)<청산별곡>의 ‘청산’과 위 기사문의 ‘농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실제 기사문과 <청산별곡>을 연계해보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또 기사문을 읽고 질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청산별곡>에서의 ‘청산’과 기사문의 '농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작품 감상 후에 실생활과 관련된 적용해 보는 것이다.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귀농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삶의 전환'을 위해 귀농하려는 3,40대들이다. 그들은 한창 일하거나, 고학력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귀농을 하려는 이유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무한경쟁으로 인해 겪는 인간소외, 지금의 직업에 대한 회의 등으로 다달이 월급을 받으려고 쫓기는 생활을 하기 보다는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 귀농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2) <청산별곡>의 '청산'은 현실적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세속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도피적 공간이다. 그 이유는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적 공간이라면 속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문의 '농촌'은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라는 데서 '청산'과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이 '청산'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찾아드는 곳이다. 귀농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도시생활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경제적인 여유로움보다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도피는 아니다.

'귀농'으로 도시에서 느낀 인간소외와 직업에 대한 회의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많이 쓰기 보다는 보다 인간적인 삶,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위의 평가는 아래의 평가문항으로 한다.

평가문항	구분
기사문에서 얻는 정보를 잘 활용하였는가?	상, 중, 하
'청산'과 '농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했는가?	상, 중, 하

4. 구성/창작> <청산별곡>을 자신의 심경으로 바꿔서 패러디시를 지어보자.

<청산별곡>을 모방을 하여 재창작을 한다.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소재로 <청산별곡>의 내용을 바꾸고 형식은 그대로 따오는 것이 패러디하기가 좋을 것이다. 시를 패러디하면서 창작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문학 감상의 마지막 단계인 창작해보기를 함으로써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심중별곡(心中別曲)

괴롭다 괴로웁구나 이내맘 괴로웁구나
신록과 봄은 푸르른데 이내맘 괴로웁구나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흘러라 흘러라 시(時)여, 길이 길이 흘러라
널러와 가없는 나도 한없이 괴로웁구나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떠가는 구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본다
시름많은 이내 심사 모다 떠가는 구름을 바라본다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서녘에 지는해 기우는 해 그림자
엊저녁 초롱은 시름만 애태우는다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세찬 빗발은 누구의 가슴에 떨어지는
괴로움과 의구심의 소나기일꼬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괴롭다 괴로웁구나 이내맘 괴로웁구나
죽단화 피고 산새들 지저귀나 이내맘 괴로웁구나
살리살리 살랑성, 살라리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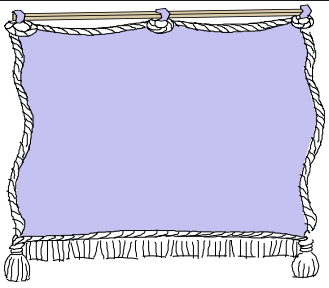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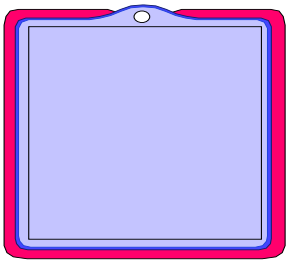
애꿎는 그림자 좇으며 오늘도 애태우며
달빛에 취해 한 걸음 발자욱을 옮기는구나
샬리샬리 샬랑성, 샬라리 샬라

우물가 맑은 물에 손이나 담가볼까
요염한 월령(月詠) 꼬드김에 낸들 어찌하리
샬리샬리 샬랑성, 샬라리 샬라[51]

패러디하기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으로 한다.

평가기준	구성
<청산별곡>의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로 진솔하게 반영되었는가?	상, 중, 하
<청산별곡>처럼 갈등의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가?	상, 중, 하

5. 인터넷 게시판의 자유토론장에 <청산별곡>에 대한 비판적인 감상을 하고자한다. <청산별곡>에 나타난 삶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판을 해보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예시답안>

긍정적인 측면
○반 ○○○

51)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docid=829753 참고.

사람은 항상 고난에 부딪치게 된다. 그 모든 아픔을 현실 세계에서 치료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번 현실 세계를 초월한 세계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반 ☆☆☆

〈청산별곡〉의 화자가 고통스러운 삶에 굴복, 동화되지 않고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용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특히 '청산에 살어리랏다'가 '청산에 살리라'로 해석될 경우 그것은 화자의 의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 된다.

부정적인 측면

○반 ●●●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참고 극복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이 맞서 싸워야 한다.

♤반 ♠♠♠

시적 자아는 이상향을 바람에 있어 무의미한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상향이 어려운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든 삶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마지막엔 술로써 마음을 달랜다. 술이 힘든 삶을 이겨 나가게 할 수 없다. 술이 깨면 다시 현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적 자아가 갖고 있는 이상향은 삶의 버팀목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도피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삶을 이기고 나아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어떡하면 이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 있어 현실의 삶을 극복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향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작품을 읽었고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작품 감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또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청산별곡>의 시적 자아는 삶에 대한 고통을 현실을 도피하거나 술로 풀어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판적 감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토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면 직접 토론보다는 많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학습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참여도가 얼마나 되고 주장이 논리적인가에 따르도록 한다.

지금까지 탈역사적인 맥락으로 본 <청산별곡>은 작품의 서정성과 보편성을 중점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보았다. 작품 감상으로 다른 작품과 연계하여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산별곡>의 보편성이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 있음을 알도록 하는 이유에서였다. 다양한 작품들도 결국은 <청산별곡>이 지향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다른 작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Ⅳ. 결론

교과서 분량과 수업시수의 한계로 인해 고려속요 작품은 문학교과서에 한두 작품이 실려 있고, 국어교과서에서는 <청산별곡> 한 작품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려속요 작품이 고려속요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해야 한다. 워낙 작품들의 성격이 각각 달라서 하나의 작품으로 고려속요의 미적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작품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다.

<청산별곡>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노랫말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갖는 작품이다. <청산별곡>은 작품의 창작 시기나 해석상의 이견 등이 다양하여 학습자들에게 작품의 가치를 알려면 한 차시의 분량으로는 깊은 수업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수-학습방법으로 본시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나누었다. 본시학습에서는 <청산별곡>의 기본적인 내용인 시구해석, 작품의 내용과 제재, 작품의 형식 등을 교수-학습하도록 하였다. 심화 학습에서는 역사적 맥락으로 본 <청산별곡>과 탈역사적 맥락에서 본 <청산별곡>으로 나누었다. 이 과정은 조별활동과 개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청산별곡>의 시대배경에 따라 화자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신집권기에 은거한 문신들, 농토를 잃은 유랑민, 민란에 참가한 하층민, 몽고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등으로 보는 견해가 이처럼 다양한 만큼 학습자들에게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별곡> 화자의 시대적 배경을 역사적

사건, 사실 등을 자료로 삼아 <청산별곡>과 연계하여 화자의 상황을 알아보고 학습자의 상상력을 더하여 재구성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탈역사적 맥락에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것을 제외하여 작품 안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산별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보편적인 삶을 노래한 내용미와 민요적인 리듬, 반복적인 후렴구 같은 리듬감을 살리는 형식미 등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체험 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면화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방법을 나름대로 모색, 제시해 보았으나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고 다듬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본다.

<청산별곡>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사는 교사용 지도서만을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감상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대한교과서,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주)교학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상) 교사용지도서, (주)교학사, 2002.
김명순 외, 고등학교 문학 (하), 문원각, 2002.
김명순 외, 고등학교 문학 (하) 교사용지도서, 문원각, 2002.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학습방법탐구』, 교학사, 1995.
박호영・한승주, 고등학교 문학 (하), 형설출판사, 2004.
박호영・한승주, 고등학교 문학 (하) 교사용지도서, 형설출판사, 2004.

2. 단행본

구중서,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사, 198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김명준, 『고려속요 집성』, 다운샘, 2000.
김완진,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김열규, 『고전시대의 가요 문학』, 새문사, 1982.
김쾌덕, 『고려노래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출판부, 1980.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출판부, 2002.
남명호, 『수행평가』, 문음사, 2000.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역편, 『(주역)고려사』, 동아대출판부, 1985.
민족문화추진회, 『고려사절요 2 』, 민족문화추진회, 1968.
서수생, 『한국시가 연구』, 형설출판사, 1970.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신동욱 공편, 『고려시대의 가요 문학』, 새문사, 1982.
신헌재 외,『열린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1996.
박기호, 『고려조선조 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2003.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박노준,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박희병, 『민족문학사 (상)』, 창작과 비평사, 1995.
양주동, 『노래여 천년의 노래여』, 문학사상사, 2003.
임주탁, 『강화 천도 그 비운의 역사와 노래』, 새문사, 2004.
정기철, 『고전시가 퍼올리기』, 역락, 2005.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200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2.
조선의 민속전통편찬위원회, 『민속음악』, 대산출판사, 2000.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출판부, 1999.
최철・박재민, 『석주 고려가요』, 이회, 2003.
최현섭 외, 『국어 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3. 논문

고창식,「청산별곡 해석에 대한 管見」, 국어교육 3집, 국어교육연구회, 1962.

김율래,「고려속요 <청산별곡>연구: 현장지도와 관련하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은미,「고려속요의 문학 교육적 지도방안」,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은아,「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 연구:고등학교 국어 (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김지연,「高等學校 高麗俗謠의 敎育 方案 硏究」,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정도,「고려속요 교육론: 정서체험과 내면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유지,「高麗俗謠 指導의 方向에 관한 硏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유옥선,「청산별곡의 문학 교육론적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장제선,「<靑山別曲>의 작품 특성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전경욱, 「조선조 전통공연예술의 계통과 성립과정」, 국악원논문집11,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Chung San Byeolgog*

Shin, Re-m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universality of history result contents of the *Chung San Byeolgog* Professor literature education - there is a place objective which examines a studying method.

Chung San Byeolgog by the many scholars are researched to the so far work form, the writer class and the contents back to be, the opinion is confused.

Interpretation of the work is difficult with is not literature recording the thing, is because of reason is not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writer and the creation regiment accurately.

Chung San Byeolgog in order like this for the opinion which is various to be appearing from secondary education professor - it is difficult it is to studying. But this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there is an education effect which is the possibility paradox to raise a

studying volition literature imaginative power.

It observes the aspect and a problem point of the consideration inside bedspread works which are being recorded in the textbook from Ⅱ chapters and the reporter it does.

The consideration inside work which is being recorded in the textbook and studying aim, about a studying activity a problem point in order to observe and to grasp. And it observes the literature textbook setup and a problem point of the *Chung San Byeolgog* which it will treat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report regarding a desirable education plan thought it tries.

Really effective professor of the *Chung San Byeolgog* - it gropes a method from Ⅲ chapters.

This work follows in poetic self and the subjects change. In order it applied the production time of the in the *Chung San Byeolgog* confused of the End of Goryeo and the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to be various, professor - it presented a studying method.

If the work outside which probably means that the work gets from what kind of social culture situation it is for an appreciation.

If and this work inner from it is sad, with loneliness it distinguishes it receives the human being universal emotion which undergoes a same psychological pain sympathy even in the people of now.

Universality and history background as like this lyric it leads and it understands it grasps it will be able to arrive to phase of criticism

and re-creation in order, a studying method professor - it presents the work and meaning and a contents of the work.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understands *Chung San Byeolgog* literature, history situation and connection it does from the history frost which understands the history connection which it understands also a human being universal emotion and the rhythm feeling back with the connection which it escapes and an education plan it shares it prepares with one method it re-will can compose.